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국 문 초 록

16-17 세기 영국은 상업경제의 확장에 따라 사회관계 전반에 경제의 논리가 개입하였다. 과거 사회의 일부 영역에만 국한되어 있었던 상품교환은 16 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모든 사회적 교환을 매개하는 지배적인 개념으로 자리잡게 되었고, 봉건제의 핵심적인 가치였던 사랑은 새롭게 부상한 상업주의적 가치들과 충돌하였다. 이러한 시기에 런던을 중심으로 생겨난 상업적 공공극장은 상품교환의 사회적 함의를 탐구하는 공간으로 기능하였다.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은 화폐교환의 구체적인 내역을 플롯의 핵심으로 삼고 있으며, 상업 행위를 전통적인 도덕적 함의로부터 분리하여 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업에 대한 달라진 시각을 담고있다. 이 작품에서 셰익스피어는 상업 행위이자 사랑의 제스처인 자기투기(self-hazarding)의 개념을 통해 이윤추구의 긍정적인 가능성을 모색하지만, 상업경제의 착취적 속성은 해소되지 않은채 샤일록에게 떠넘겨지고 가리워진다. 이때, 화폐경제가 초래하는 불안은 결혼관계에서의 성적 소유에 대한 불안으로 번역되고, 사랑과 상업의 불완전한 결합은 작품의 화합적 결말에도 불구하고 다가올 비극을 예고한다. 상업의 경쟁적 측면이 전면화된 세계를 다루는 『트로일러스와 크레스이다』는 『베니스의 상인』으로부터 이어지는 상업에 대한 셰익스피어의 계속되는 탐구의 결과물로 이해될 수 있다. 『트로일러스와 크레스이다』에서 트로이 전쟁은 헬렌을 차지해 명성을 획득하려는 이들의 투기의 장으로 그려지며, 여기서 여성은 남성들 간의 경쟁을 매개하며

교환되는 상품이 된다. 이 작품에서 상업은 모든 인간 활동을 지배하는 경쟁적 속성에 대한 은유가 되면서 명백하게 부정적인 함의를 지니는데, 셰익스피어는 모든 사회관계에 침투한 경제의 논리를 성적, 도덕적 타락을 가리키는 질병의 이미지를 통해 표현한다. 상업의 의미에 대한 셰익스피어의 두 작품의 상반되는 시각은 세기 말 영국에서 상업경제의 발달이 지녔던 양면적인 의미를 보여준다.

주요어: 셰익스피어, 『베니스의 상인』, 『트로일러스와 크레스이다』, 상업, 사랑, 결혼, 상품, 봉건주의, 자본주의

학 번: 2012-22871

목 차

| | |
|----------------------------------|----|
| 국문초록 | i |
| 1. 서론..... | 1 |
| 2. 『베니스의 상인』 과 사랑의 상업적 재정의..... | 20 |
| 3. 『트로일러스와 크레스이다』 와 사랑의 상품화..... | 43 |
| 4. 결론..... | 66 |
| 인용문헌 | 69 |
| Abstract..... | 74 |

1. 서론

본 논문은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 (*The Merchant of Venice*)과 『트로일러스와 크레시다』 (*Troilus and Cressida*)를 중심으로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초반 사이의 영국의 경제적 현실이 르네상스 연극에서 사랑이 재현된 방식에 어떻게 개입하였는지를 읽어내고자 한다. 사랑과 경제가 고전주의 경제학이 탄생한 18세기를 전후로 각각 독립적인 사회적 담론의 영역으로 자리잡게 되었다면(Woodmansee 5), 이 두 영역의 '분리'가 근대적 경제관이 형성되었던 16세기에 들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이 이 글의 논지이다. 봉건주의적 경제의 핵심적 가치였던 사랑은 셰익스피어의 시대에 새롭게 부상하였던 상업주의적 가치들과 충돌하였고, 이는 사랑과 상업에 대한 당대 연극들이 보였던 유별난 관심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이 글은 셰익스피어의 두 작품을 통해서 르네상스 연극을 상업경제의 발달에 대한 반응이자 봉건주의적 경제가 맞게 된 위기에 대한 반응으로 읽을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셰익스피어의 시대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이제까지의 논의들을 살펴보면, 이 시기에 영국의 경제구조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돌이킬 수 없이 바뀌었다는 데에 전반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논의들은 급격한 인구증가와 가격폭등, 토지매매의 증가, 인클로저 운동, 돈과 신용을 바탕으로 하는 상업의 확장, 신세계의 발견과 해외무역의 발달 등의 현상들에 주목하면서, 중세의 자급자족적 농업경제에서 이윤추구를 주요한 동기로 하는 상업경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중세에도 상업활동이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16-17 세기의 이러한 현상들이 이후 근본적으로 새로운 사회질서의 형성으로 이어졌다는데에 많은 학자들은 의견을 같이하는데, L.C. 나이트(L.C. Knight)는 "엘리자베스 조와 초기 스튜어트 조의 경제사는 19 세기를 내다보는 새로운 형태의 활동들이 더 지배적이 되면서, 중세에 기반을 두고 있던 전통적 질서가 붕괴된 역사"(The economic history of the Elizabethan and early Stuart period is the history of the increasing dominance of newer forms of activity which look forward to the nineteenth century, and the disintegration of a traditional order with its roots in the Middle Ages.; 27)라고 주장하면서, 유럽에서 자본주의가 정확히 언제 시작되었는지를 짚어내는 일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16 세기 후반에는 "자본주의적 현상들"(capitalistic processes)이 확실한 것이 되었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고 지적한다(33).

16-17 세기 영국의 경제사는 봉건주의에서 자본주의로의 이행에 대한 마르크스의 역사적 해설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18세기 고전주의 경제학자들이 이 시기를 봉건제의 굴레로부터의 해방의 역사로서 시장경제의 부상을 불변하는 경제 법칙의 필연적인 결과로 설명하였다면, 이들에 대한 비판을 기획하였던 마르크스는 이 시기를 농민들이 강제로 삶의 터전을 잃고 임금노동자로 전락하게 된 소외의 역사의 시작으로 보았다.¹ 마르크스는 16-17 세기 이후에 오는

¹ 르네상스 영국의 경제사(economic history)에 대한 논의로는 키스 와이슨(Keith Wrightson)의 『지상에서의 필수품들: 초기 근대 영국의 경제적 삶』 *Earthly Necessities: Economic Lives in Early Modern Britain* (Yale University Press, 2000) 서문을 참조하였다.

자본주의적 사회관계가 형성되게 된 핵심적인 조건이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노동 조건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면서 형성되었다고 보고(874), 16세기 영국을 이 소외의 과정의 "고전적인 형태"(classic form)를 보여주는 예로 지목하였다(876). 그에 의하면, 이 시기 영국에서는 봉건 영지, 교회의 토지, 공유지 등에 대한 사유화가 폭력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면서, 생계수단으로서의 땅이 자본화되고 농지로부터 최대한 많은 이윤을 뽑아내는데 주력하는 자본주의적 농업이 발달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농민들로 구성된 "자유 노동자"(free laborer)들이 대거 발생하였다(877-895). 또한 상업적 농업의 발달은 식량을 상품화하고 자급자족할 수 없는 인구의 수를 증가시켰으며 국내 시장을 형성하게 되었다(908-913). 마르크스는 이렇게 확장된 시장에서의 상품의 순환을 근대적 자본의 출발점으로 지목한다.

상품의 순환은 자본의 출발점이다. 상품 생산과 그것의 바탕으로 있는 고도로 발달한 형태의 순환. 자본의 근대사는 16세기에 전세계적 상업 시스템의 성립과 국제 시장의 개방과 함께 시작된다. (132)

봉건주의에서 자본주의로의 이행에 대한 마르크스주의 서사에 대한 비판적 논의는 리처드 할펀(Richard Halpern)의 『원시적 축적의 시학』 *The Poetics of Primitive Accumulation*(1991)의 서문을 참조하였다. 역사적 진행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의 설명은 경제적 조건에 우선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총체적인 사회 구조를 상정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본 논문에서는 16-17세기 이후의 자본주의 체계의 성립 조건에 대한 마르크스의 통찰을 빌려오되, 이를 16-17세기의 구체적인 역사적 맥락에서 재구성하고자 한다.

The circulation of commodities is the starting point of capital. Commodity production and that highly developed form of commodity circulation upon which it rises. The modern history of capital begins in the sixteenth century with the establishment of a worldwide commercial system and the opening of a world market. (132)

마르크스는 이와 같은 상품교환이 마치 자유롭고 평등하게 이루어진다는 인상을 주면서 실제로는 노동력의 착취를 통해 잉여 가치를 생산하는 자본주의적 메커니즘을 가린다고 주장하였다(280). 이때 이처럼 자본주의로의 이행을 폭력, 불평등, 착취의 과정으로 본 마르크스의 역사적 시각은 르네상스 영국인들의 인식과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다. 당대의 많은 영국인들은 변화하는 경제적 현실을 우려의 눈으로 바라보았으며 자신들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제적 현상들의 의미를 도덕적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했다. 대표적인 예로, 1516 년에 쓰여진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Utopia)는 지대 인상, 인클로저 운동, 화폐가치 인상과 같은 현상을 소수가 자신들의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수의 농민들이 핍박하면서 빚어진 사회적 불의라고 풀이해낸다(이종숙 182-195). 유토피아에 다녀온 여행자 휘틀로다이우스와의 대화 형식으로 구성된 『유토피아』의 제 1 권은 유럽과 영국의 구체적인 현실에 대한 분석에서 출발한다.² 휘틀로다이우스는 1497 년 헨리 7 세의 조세 정책에 반발해 콘월(Cornwall)의 시민들이 런던으로 행진하였다가 왕의 군대에 의해서 블랙히스(Blackheath)에서 무자비하게 제압당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범죄가

² 이하 『유토피아』의 번역과 음역은 문예출판사가 발행한 김남우의 번역본을 따른다.

계으름이나 악행이 아니라 가난에서 비롯되는데도 가난의 원인인 사회적 부조리를 고치지 않고서 도둑에게만 사형 선고를 내리는 영국의 사법제도의 모순을 비판한다(85-87). 그는 이어서 영국 사회의 가난의 원인은 아무런 노동도 하지 않으면서 낮은 봉건적 가치에 기대어 나태한 수하들을 거느리는 귀족들과 탐욕스러운 성직자들이 지대를 인상하고 농지를 목장으로 전환시켜서 농민들을 착취하고 또 농지에서 내몰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양들은 흔히 온순하고 많이 먹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제가 듣기로 양들이 사나워지고 게걸스러워지기 시작하여 마침내 인간들마저 집어삼킬 정도라고 합니다. 토지며 가옥이며 도시를 황폐화시켜 사람들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부드럽다는 이유로 값비싼 양털이 생산되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귀족들과 부유한 시민들까지, 심지어 성직자로 봉직하는 상당수의 수도원장들도 이제는 매년 토지로 얻는 소득과 수입에 선조들이나 선임자들처럼 만족하지 못하고, 공익에 해를 끼칠 뿐 전혀 기여하지 않은 채 여유롭고 화려하게 살더니, 농사지을 토지를 깡그리 없애고 방목을 위한 울타리를 둘러놓고, 주택을 헐어 없애고 마을을 철거했습니다. (91)

휘틀로다이우스는 또한 유럽의 왕들이 헛된 공명심을 좇아 무의미한 전쟁에 몰두한다고 비판하는데, 그에 의하면 이들은 화폐의 가치를 높여서 빚을 낸 다음에 값이 떨어질 때는 낮춘다거나, 전쟁을 한다는 거짓 명분으로 세금을 거둔 뒤 평화조약을 맺어 그 이윤을 챙기는 등의 수를 쓴다는 것이다(115-116).

휘틀로다이우스는 이처럼 영국 사회의 부조리를 소수의 강자들의 탐욕과 오만이 빚어낸 일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가능토록 하는 사유재산과 화폐제도가 폐지되지 않는 한 사회정의는 결코 실현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사유재산제도가 시행되고 돈이 모든 것의 척도가 되는 곳에서는 어디서고 국가가 정의롭게 다스려지거나 변창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선생께서는 온갖 훌륭한 것들을 사악한 사람들이 차지하는 곳에서 정의가 실현된다거나 혹은 모든 것을 소수의 사람들이 독차지하는 곳에서 행복이 실현된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곳에서 그들 소수의 사람들은 늘 불안할 테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늘 극단적으로 가난할 테니 말입니다. (127)

반면, 유토피아는 사익의 추구가 엄격히 통제되고 모든 경제활동이 사회적 의무 안에 귀속된 사회로 재현된다. 유토피아에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사유재산이 허용되지 않으며 귀금속에 대한 헛된 욕망을 불리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아이들의 장난감이나 노예의 사슬과 같이 천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을 뿐 아니라(172-175), 상업은 단지 한 지역의 잉여 생산물을 부족한 지역에 배분하는 활동으로서 가족들 사이에서 대가없이 자유롭게 주고받는 선물에 비유된다(170).

모어는 『유토피아』에서 중세의 도덕경제의 눈으로 당대의 변화하는 현실을 해석하였다. R.H. 토니(R.H. Tawney)에 의하면, 중세의 사회는 모든 영역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목적을 지향하는 시스템으로 이해되었으며, 경제가

독립적인 인간활동의 영역으로 상정되지 않았다(25). 이러한 맥락에서 사익의 추구는 사회적 의무를 저버리는 일이자 종교적 죄악으로까지 간주되었는데, 물건을 싸게 사서 비싼 값에 팔아 이윤을 내는 상업은 늘 도덕적으로 모호한 활동일 수밖에 없었다. 특히 가치가 기본적으로 땅에서 노동함으로써 생겨난다는 시각에서 상업적 이윤은 노동하지 않은채 자신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어내는 부정한 행위라고 이해되었을 뿐 아니라, 자연의 섭리를 거슬러 인위적으로 가치를 창출해내는 신성모독적 행위로 간주되기도 하였다(Tawney 36-39). 이러한 상황에서 상업적 이윤은 상업이 공동체의 필요를 충족시킨다는 사실이 인정될 때에만 정당화될 수 있었는데, 나이트에 의하면, 중세의 상업은 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에 귀속되어 있었으며, 상업활동에 내재된 이윤 추구의 성향은 여러가지 규제에 의해서 통제되었다(1-20).

모어는 이러한 도덕경제의 관점에서 토지가 개인적 이윤을 위해 사용되고, 화폐가치가 사회적 의무를 대체하는 현실에 비판적으로 반응하였고, 경제적 욕망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수행하였다. 모어는 사익을 추구하려는 성향이 인간의 악한 본성이라고 보고 휘틀로다이우스를 통해서 이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지만, 동시에 유토피아의 이상이 과연 실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회의를 내비친다(이종숙 192-195). 『유토피아』의 핵심에는 탐욕과 오만이 인간 본성에 너무 깊이 뿌리내리고 있어 이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는데, 사유재산제도를 폐지해야한다는 휘틀로다이우스의 주장에 대해서 작중 모어는 모든 것이 공유되는 사회에서는 노동의 동기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쟁과 살육이 끊이지 않을 것이며, 사람들 사이의 어떠한 차별도 없다면 통치자의 권위 또한 성립할 수 없어 혼란만 생길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한다(131). 요컨대, 모어는 "경제"를 제거되어야 할 사회악의 근원으로 지목하면서도, 그것이 없는 사회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일종의 실험을 유토피아라는 가상의 국가를 통해서 수행하였다.

중세로부터 물려받은 이상과 16세기 초의 변화하는 경제 현실 사이에서 모어가 한 고민은 16세기 후반에 이르러서 더욱 현실화된다. 인구 증가와 가격 폭등으로 인해 지대가 인상되고 오랜 관습에 의거한 종신토지보유권(tenure)이 토지임차권(leasehold)의 형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토지를 잃은 농민들이 도시로 몰리게 되었고, 상업활동이 증가하면서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었던 시장이 런던과 같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여 국가 전역으로 확장되었다. 또한 공공 시장의 여러 규제들을 통해서 통제되어왔던 상업거래는 점차 개인들 사이의 비공식적인 거래의 형태를 띠게 되었고, 상업의 지리적 범위가 확장되면서 도덕적 지탄을 받았던 전문적인 중개인들의 역할이 필수적인게 되었다(Wrightson 132-174). 또한 이러한 장거리 거래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 환어음(bill of exchange)이나 조건부채권(conditional bond)과 같은 신용제도가 발달하게 되었는데, 확장된 경제활동을 화폐량이 따라잡지 못하자 거의 모든 영국인들이 누군가에게 빚을 지거나 빚을 내주게 되면서 복잡한 신용관계에 얽혀 있었다(Muldrew 171). 내부 시장의 확장과 함께 해외 무역의 양과 다양성 역시 증가하였다. 상업적 주식회사(joint-stock company)의 부상과 함께 영국에서

생산된 모직물의 수출 뿐 아니라 고수의 상품에 대한 수입, 신세계 탐험과 식민지 개척, 해적 행위 등에 대한 투자가 성행하였고,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보다 낮은 금리에 돈을 빨리 순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화폐 시장, 국제 금융업, 또 은행업이 발달하였다(Knight 34-49).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하루 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으며 과거의 경제제도가 완전히 사라진 것 또한 아니었다. 콰이슨에 의하면, 16 세기 후반까지도 영국은 여전히 몇몇 도시를 제외하고는 어디까지나 근본적으로 농업이 중심이 된 사회였으며, 상업의 범위 역시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영국은] 상업화된 경제라기보다는 대체로 전통적이고 근본적으로 농업에 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식량, 원자재, 그리고 일부 제조물과 사치품을 장거리 시장에 공급하는 일에 주로 관여하는 제한된 상업 분야를 지닌 경제적 질서였다. (111)

All in all, then, [England] was not so much a commercialised economy as a largely traditional, fundamentally agrarian economic order with a limited commercial sector primarily engaged in the supply of limited long distance markets for foodstuffs, raw materials, some manufactured goods and luxury products." (111)

따라서 16 세기 영국은 크게 중세로부터 물려받은 경제구조의 바탕 위에서 이와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업경제의 영역이 점차 확장되어 가고 있었던 상황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전환기를 살았던 영국인들은 근대적 경제로의 이행에 다양하게 반응하며 이에 참여하였는데, 이때 계산적인 이윤 추구 행위들이

일상화되고 정당화되는 한편, 경제활동을 상호간의 의무로 이해하는 시각 역시 여전히 존재하였다. 예를 들어, 멀드류는 "당대인들은 시장 활동을 자기이익이 아닌 신용관계, 신뢰, 의무와 계약을 강조하는 언어를 사용하여 이해하였다"(contemporaries did not . . . understand marketing through the use of a language which stressed self-interest, but rather one which stressed credit relations, trust, obligation and contracts.; 163)고 지적하는데, 이와 같은 사실은 고전주의 경제학자들이나 마르크스와 같이 전면화된 자본주의적 체계에 대한 지식을 지니고 있지 않은 상태로 근대로의 이행을 직접 경험하였던 당대의 영국인들에게 시장 활동은 도덕으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인간 활동의 영역이 아니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호크스는 특정 인간 행위를 "경제적"이라고 구분지을 수 있다는 생각은 18세기 경제학자들에 의해서 발명된 것이었으며, 르네상스 영국인들에게 나머지 삶으로부터 분리된 "경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83).

애그뉴(Jean-Christophe Agnew)는 고대로부터 르네상스에 이르기까지의 시장의 역사에 대한 논의에서 16세기 영국에서 상업이 확장함에 따라 시장의 의미 자체가 변하였다고 주장한다(17-56). 그에 의하면, 본래 통제된 "시장터"(marketplace)에서 이루어졌던 상업활동이 점차 개인들 간의 비공식적 거래의 증가로 인해 그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시장"은 더 이상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 그 자체, 혹은 가격이나 교환가치와 같은 추상화된 의미를 지니게 된다. 그 결과, 경제 현상은 규율과 관습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게 되고, 시장은 그 자체로서 독립적인 논리를 지닌 실체로 변모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시장의 의미가 장소에서 과정, 원칙을 거쳐 권력으로 역사적으로 변했다는 사실은 상품교환이라는 지배적인 개념의 구체성이 점진적으로 치환되었음을 시사한다. 수요와 공급이 그 자체로서 사실상 생명을 지니게 되면서, 사회적 관계의 영역에(또는 신에게) 부여되었던 물질성, 현실성, 주체성이 암묵적으로 상품 관계의 영역으로 재할당되었다. (56)

This historical shift in the market's meaning — from a place to a process to a principle to a power — suggests a gradual displacement of concreteness in the governing concept of commodity exchange. The attributes of materiality, reality, and agency ordinarily assigned to the sphere of social relations (or to God) were implicitly reassigned to the sphere of commodity relations, as supply and demand took on a putative life of its own. (56)

애그뉴의 논의는 봉건주의에서 자본주의로의 이행이 단순한 상업활동의 증가를 넘어서 상품교환의 형태와 의미 자체가 확장되고 변모한 과정이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시장의 물리적 경계가 무너지면서 상업은 구체적인 행위로서 뿐 아니라 개념이자 이데올로기로서 르네상스 영국인들의 의식에 스며들게 되었다는 것인데, 더글러스 브루스터(Douglas Bruster)는 르네상스 런던의 시장이 "상업적 이데올로기에 생명을 주고 이를 확장하는 인간 행위자들에 의해서

실행에 옮겨졌다"(the market found agency through human actors who vivified and extended a commercial ideology; 16)고 주장한다.

16-17 세기에 걸쳐 상업의 확장과 함께 영국의 사회관계 전반에 변화가 일어난다. 영국은 확장된 시장을 통해서 점차 하나로 통합된 경제적 공동체로서의 국가가 모습을 갖추가고 있었던 한편, 전통적인 공동체주의적 사회 관계는 보다 개인적이고 분절적으로 변모해갔다. 이러한 변화는 영국의 핵심적인 경제 단위였던 가족 구조의 변화를 살펴볼 때 분명히 드러난다. 로렌스 스톤(Lawrence Stone)에 의하면, 15 세기 후반에서 17 세기 초반에 걸쳐 영국의 귀족 가구(household)는 광범위한 친족의 구성체에서 가부장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진 핵가족의 형태로 조금씩 재편되었다(Stone, *The Family* 69-148, *The Crisis* 129-98). 과거의 가구가 직접적인 혈연관계에 있는 친족들뿐 아니라 다수의 하인과 식솔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집단을 의미했다면, 이 시대의 가구는 감정적 결합과 친밀감을 바탕으로 둔 제한된 구성체로 점차 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The Family* 93-108). 스톤에 의하면 이러한 변화는 가부장의 권위를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가족 구성원들이 더 가까워진 만큼 그들의 의지에 대한 통제 역시 이전보다 더 정밀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115-127). 특히 재산의 상속과 분배, 보존의 수단이었던 결혼 문제에 있어서 아버지는 자식의 운명에 대해서 거의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자신의 뜻을 거스르는 자식에 대해서 아버지는 유산을 박탈할 수 있었으며, 특히 딸의 경우 일종의 재산으로 간주되기도 하였다(Stone, *The Family* 127-136).

가부장제의 강화는 여성의 권한을 전반적으로 약화시켰다. 과거 결혼관계를 중재하였던 카톨릭 교회가 사라지고 친정과의 유대관계도 약해지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귀속되는 경향은 더욱 두드러졌다(Stone, *The Family* 136-144). 특히 개신교의 "신성한 결혼"(holy matrimony)의 교리가 부상하고 부부 사이의 사랑이 사회적 이상으로 정립되면서,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을 강조하는 담론들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이 당시 결혼과 동시에 아내의 모든 재산이 남편의 소유가 되었던 당대의 결혼제도 역시 핵가족 내에서의 여성의 권한을 현저히 약화시킨 중요한 원인 중 하나였다(Stone, *The Family* 136-137). 본래 가족들 사이의 정치, 사회적 결합을 의미하였던 결혼은 이 시기 점차 금전적 거래로서의 성격을 띠게 되었는데,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당대의 많은 귀족들은 상속녀와 결혼함으로써 그들의 재산과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였다(Stone, *The Crisis* 617-18). 결혼은 일종의 상업거래로 이해되었으며 아내는 종종 지참금과 동일시되었다(Bruster 43).

이러한 결혼의 상업화는 당대인들에게 매우 익숙한 도덕적 비판의 주제였다. 예를 들어, 『결혼과 아내 고르기에 대한 담론』 (*A Discourse of Marriage and Wiving*)(1615)을 쓴 알렉산더 니콜즈(Alexander Niccholes)는 마치 상인이 상품을 팔듯이 얼마나 많은 지참금을 줄 것인지만을 고려해 아내를 고르는 것이 향간의 풍습이 되었다고 비판한다("It is a fashion much in use in these times to choose wives as chapmen sell their wares, with *Quantum dabit*? What is the most you

will give?"; 337).³ 그런데 흥미롭게도 니콜즈는 다음 대목에서 결혼에 임하는 남편의 바람직한 태도를 상인의 모험적인 태도에 비유한다.

결혼은 하나의 모험인데, 결혼하는 자는 누구나 그의 평화, 자유, 그리고, 그렇다, 때로는 영혼까지도 모험하기 때문이다. (338)

marriage is an adventure, for whosoever marries adventures, he adventures his peace, his freedom, his liberty, his body; yea, and sometimes his soul too. (338)

니콜즈에게 상업은 천박한 돈의 거래가 될 수도, 개인에게 상당한 희생을 요구하는 모험일 수도 있으며, 그 결과 상업행위로서의 결혼은 순수하게 물질적 계산에 근거한 계약일 수도, 두 개인 사이의 영혼의 차원에서의 긴밀한 결합일 수도 있게 된다.

위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상업의 언어와 개념은 당대의 사랑과 결혼의 담론에 스며들었다. 본래 사랑은 중세 봉건제의 군신관계와 그 바탕을 이루었던 기사도 이데올로기의 핵심적 가치로 이론화되었는데, 문학적 이상으로서 궁정식 사랑은 충족되지 않는 욕망 자체를 근본적 모티프로 삼음으로써 모든 종류의 윤리적 열망을 담아낼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Huizinga 104-105). 특히 단테와 페트라르카의 시에서 낭만적 사랑은 신플라톤주의의 언어와 결합하면서 초월적 이상에 대한 열망을 표현하게 되는데(Huizinga 104), 제임스 한킨즈(James Hankins)는 과거 궁정식 사랑의 정신적 전통과는 달리 르네상스 신플라톤주의적 사랑관은 제도적 교회의 교리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보다 개인적이고 세속적인

³ Bedford 판 『베니스의 상인』의 336-339 면에 발췌된 텍스트에서 재인용하였다.

차원에서의 인간 욕망과 정신성을 재현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한다(387-88). 또한 르네상스 시대의 사랑의 담론은 이러한 초월적 경향과 동시에 사랑을 결혼의 테두리 안에서 정의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졌는데, 이는 불륜을 중요한 요소로 하였던 중세의 궁정식 사랑과 결정적으로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르네상스 영국에서 널리 읽혔던 발다사레 카스틸리오네(Baldasare Castiglione)의 『궁정인』 4 권에서는 궁정 귀부인의 정절의 문제를 다루는데, 조안 켈리-가돌(Joan Kelly-Gadol)은 카스틸리오네가 "사랑과 결혼을 숙명적으로 결합하였다"(established a fateful bond between love and marriage)고 지적하면서 이를 유럽 귀족 사회에서의 가부장제의 강화와 연결짓는다(154). 요컨대, 르네상스의 사랑의 담론은 대상에 대한 무한한 욕망과 가부장제적 통제라는 상반되어 보이는 두 요소를 동시에 지녔으며, 이는 당대의 상업주의적 가치와 결합하였을 때, 무한한 경제적 가치에 대한 소유욕을 표현할 수 있는 욕망의 모델이 될 수 있었다.

사랑과 상업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연구의 대상으로서 연극은 당대의 다른 문학장르와는 구별되는 독특한 지위를 지닌다. 나이트의 『존슨의 시대의 드라마와 사회』 (*Drama and Society in the Age of Jonson*)(1937)의 출판 이후, 런던의 극장을 상업의 확장에 따른 도덕적, 사회적 함의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진 공간으로 보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특히 영국경제가 상업화되고 있던 바로 그 시점에서 입장료를 받고 운영되는 상업적 공공극장이 런던을 중심으로 최초로 설립되면서 큰 대중적 인기를 끌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시장과 극장이라는 두

제도 사이의 관련성을 설명하려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대표적으로, 애그뉴는 엘리자베스조의 극장이 "실험적, 탐구적, 주변부적 속성"(experimental, exploratory, and extraterritorial qualities)을 바탕으로 "아직 부분적으로만 이해된 초기 시장사회의 새로운 관계에 대한 대리 형식으로 기능했다"(operate as a proxy form of the new and but partly fathomable relations of a nascent market society; 11)고 주장하였다. 반면, 브루스터는 르네상스 극장을 연극이라는 상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상업적 제도로서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3), 이 시기의 극장이 시장사회의 이슈와 불안을 해결하려했던 일종의 "사회적 꿈"(social dream)의 기능을 했다고 주장한다(37). 브루스터는 특히 이 시기의 극작가들이 성적 교환과 경제적 교환을 연결짓는 전통적인 주제에 대해서 "불안하지만 특별한 매혹"(special, if anxious, fascination)을 느꼈으며(xi), 당대의 "상품의 보존과 소유의 불가피한 불확실함에 대한 강박"(obsession with the integrity of commodity and the seemingly inevitable hazards of ownership)이 결혼과 성적관계의 차원에서 형상화되었다고 주장한다(41-43). 요컨대, 상업의 확장이 만들어낸 영국 사회의 집단적 불안이 성적인 차원으로 재현되고 또 탐구되었다는 것이다.⁴

애그뉴가 극장의 실험성과 주변부로서의 속성을 강조한다면 브루스터는 극장이 시장제도의 한가운데서 기능했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⁴ 그 밖에 극장의 경제적 바탕에 대한 논의로는 크리스토퍼 파이(Christopher Pye)와 S.C 셔쇼(S.C. Shershow)를 참조하였다.

있지만, 이들의 논의는 둘 다 르네상스 영국에서 사랑, 상업, 그리고 연극의 영역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물질적 경제와 사랑과 문학의 경제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들의 논의는 현재 신경경제주의 비평(New Economic Criticism)이라는 이름 하에 묶인 일련의 비평들과 그 맥을 같이 한다. 마크 셸(Marc Shell)의 『문학의 경제』(*The Economy of Literature*)(1978)에 영향을 받은 이들 비평은 문학과 경제가 별개의 담론으로 발달하게 된 역사적인 배경에 관심을 가지고 이 두 영역이 서로를 어떻게 조건지었는지를 탐구한다(Woodmansee 4-6).⁵ 따라서 이러한 논의의 맥락에서 르네상스 연극을 당대의 상업의 확장에 대한 반응으로 읽는 일은 경제제도와 재현의 영역 사이의 관계를 근대적 경제의 개념들이 형성되고 있었던 역사적 시점으로 되돌아가 찾으려는 노력으로 이해될 수 있다.

셰익스피어의 『트로일러스와 크레스이다』와 『베니스의 상인』은 상업을 작품의 핵심적 관심사로 삼으면서 이를 사랑의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짓고 있는 작품들이다. 두 작품에서 사랑은 (은유적으로 혹은 문자 그대로) 채무, 투자,

⁵ 셸은 언어와 경제의 상징화 과정의 형식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문학을 경제적 형태를 통해 분석될 수 있는 은유의 교환으로 정의하였다("Literary works are composed of small tropic exchanges or metaphors, some of which can be analyzed in terms of signified economic content and all of which can be analyzed in terms of economic form."; 7). 우드만시 편 *The New Economic Criticism: Studies in the Intersection of Literature and Economics* (Routledge, 1999) 서문과 우드브리지 편, *Money and the Age of Shakespeare* (Palgrave Macmillan 2003)에 수록된 브루스터의 논문 "On a Certain Tendency in Economic Criticism of Shakespeare" 참조.

상품거래, 해외 무역 등과 같은 경제행위로 재현되며, 특히 낭만적 사랑은 상업에 바탕을 둔 사회질서 전체에 대한 일종의 모델이 된다. 예를 들어, 크레스다의 배신을 목격한 트로일러스는 "하늘의 유대/계약이 끊어졌다"고 절규하는 대목("The bonds of heaven are slipped, dissolved and loosed"; 5.2.163)이나, 헥터가 헬렌과 메넬라우스 사이의 부부의 계약은 인류를 이어주는 "가장 밀접한 의무/빚"("What nearer debt in humanity / Than wife is to the husband"; 2.2.175-76)으로서 "자연과 국가의 도덕법"("moral laws / of nature and nations"; 2.2.184-85)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말하는 대목은 셰익스피어가 사랑을 사회 질서 전체의 상업화의 문제를 탐구하기 위한 키워드로 삼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1 장에서는 『베니스의 상인』을 중심으로 실제 상업적 계약으로 재현된 베니스인들의 사랑의 관계에 내재된 긴장을 살필 것이다. 『베니스의 상인』이 상업제도 자체에 대한 셰익스피어의 관심에서 출발한다고 보고, 작품이 화폐경제에 내재된 부정적 속성을 상호의무에 기반한 사랑의 가치와 어떻게 화해시키는지, 그리고 상업적 행위로서의 사랑의 도덕적 함의란 어떤 것인지를 따진다. 그 과정에서 고리대금업, 상업 투자, 그리고 결혼제도와 관련한 당대의 현실과 작품에서 재현된 인물들 사이의 경제적 관계를 비교하고, 셰익스피어가 그가 처한 역사적 조건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논한다. 셰익스피어는 상업의 구체적인 실천에 주목함으로써 상업적 이윤추구 행위를 사회적 이상으로 재정의하지만, 이는 샤일록이라는 타자에게 상업경제의 불균형과 경쟁의 속성을 떠넘김으로써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해소되지 않은 불안을 남긴다. 화폐경제의

유동성이 초래하는 불안은 또 하나의 상업적 계약으로서의 결혼제도 하에서의 성적불안의 형태로 표현된다.

2장에서는 『트로일러스와 크레시다』를 『베니스의 상인』에서 가리워졌던 상업경제의 문제가 전면화된 세상에 대한 탐구로 읽는다. 『트로일러스와 크레시다』에서 셰익스피어는 명성을 이윤처럼 좇는 트로이 전쟁의 경쟁적 속성과 트로이 전쟁의 질서 안에 위치한 트로일러스와 크레시다의 사랑을 상업의 언어를 사용해 표현한다. 셰익스피어는 사랑과 상업을 연결짓는 오랜 문학적 전통 위에서 작품을 쓰지만, 셰익스피어의 상업적 은유는 이용가치가 교환가치를 대체한 확장된 상업체계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그가 속한 시대의 경제적 이슈에 바탕을 두고 있다. 셰익스피어는 『트로일러스와 크레시다』에서 상업거래에 비유된 사랑은 매춘과 동일시하고, 경제적 욕망을 질병의 이미지와 결합함으로써 상업이 보편화된 세계의 성적/도덕적 타락상을 비판한다.

2. 『베니스의 상인』 과 상업으로서의 사랑

『베니스의 상인』은 상인과 상업에 대한 작품이다.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상인과 상업이 셰익스피어의 작품의 핵심이 될 정도로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은 상인과 상업이 이 시기에 무언가 새로운 것, 탐구되어야 할 것, 기존의 질서 안에 포섭되거나 혹은 통제되어야 할 문제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동시에 이는 돈과 신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상업적 교환이 이미 영국인들의 삶의 일상적인 조건으로 자리잡게 되었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셰익스피어가 작품을 쓰던 시기에 상업은 익숙하면서도 낯설고, 필요하면서도 위협적인 무엇인가로 느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상인과 상업에 대해서 『베니스의 상인』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이분법과 역설에 바탕을 두고 있다. 셰익스피어는 상인 안토니오를 친구를 위해서 자신의 재산과 목숨을 아낌없이 투자하는 위인으로 그려내는데, 그 결과 상업은 포샤와의 결혼을 성사시켜 막대한 부를 얻을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베니스와 벨몬트를 하나의 사랑의 공동체로 엮어낸다는 점에서 일종의 도덕적, 사회적 이상으로 제시된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와 사랑의 화합은 또 하나의 베니스의 '상인'인 샤일록의 자금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부와 사랑의 획득을 가능케 한 샤일록의 돈은 거꾸로 안토니오의 목숨과 베니스의 상업적 질서를 위협하는 칼날이 된다. 이러한 역설은 화폐경제가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독점과 불의를

초래한다는 모어의 우려가 여전히 유효한 상태에서, 상업적 관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러한 문제를 넘어서는 사회 질서를 상상하려는 셰익스피어의 기획 자체에 내재된 요소이다. 셰익스피어는 상대방에게 자신을 투자하는 상업적 행위로서 사랑을 재현하는 한편, 상업의 부정적인 측면을 종교적, 인종적 타자인 샤일록에게 떠넘김으로써 처리한다. 하지만 서로 명백히 다른 도덕적 의미를 지녀야 할 안토니오와 샤일록의 상업 행위가 사실상 구별되지 않으며, 바사니오와 포샤의 사랑의 계약 역시 경제적 실리를 따지는 상업 계약의 형태를 띠는 사실은 작품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불안을 낳는다. 그 결과 『베니스의 상인』에서 사랑과 상업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끊임없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가치를 대변하게 된다.

『베니스의 상인』의 경제적 측면에 주목하는 최근의 비평들은 크게 자본주의로의 이행이라는 마르크스주의적 역사의 맥락 안에 작품을 위치시키는 월터 코엔(Walter Cohen)의 논의의 틀을 따른다. 코엔은 자본주의적 경제변화에 따른 영국의 지배적 이데올로기의 불안(198-199)이 베니스 역사에서의 "유사 봉건적 재정주의"(quasi-feudal fiscalism)를 대변하는 샤일록과 "자생적 부르주아 상업주의"(native bourgeois mercantilism)를 대변하는 안토니오 사이의 갈등이라는 "부정확한 이분법"(false dichotomy)을 통해서 해소될 길을 찾는다고 본다(202-203). 뿐만 아니라 코엔은 『베니스의 상인』이 안토니오, 바사니오, 포샤의 결합을 통해서 "토지에 근거한 귀족적 부와 상업 자본 사이에서 전자가 지배적인 계급간 화합"(interclass harmony between aristocratic landed wealth and

mercantile capital, with the former dominant.; 203)을 제조하려 한다고 주장한다. 이때 작품이 지향하는 이데올로기적 화합이 사랑, 특히 결혼관계에서의 사랑의 맥락에서 다루어진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코엔에 의하면, 르네상스 문학은 사랑과 결혼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보였고, 특히 "결혼관계에서의 사랑은 사회질서의 지주로 간주되게 되었다"(married love came to be viewed as a crucial buttress of the social order.; 188). 다시 말해, 사랑의 의무에 바탕을 둔 봉건제에서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부간의 사랑이 사회적 이상으로 역설되었다는 것인데, 이 사실은 자본주의가 사랑과 결혼의 영역에서의 불안을 초래하였음을 시사한다.

『베니스의 상인』이 이처럼 경제와 사랑의 두 영역을 긴밀히 연결지으며 그 관계를 문제삼고 있다는 점은 여러 비평가들에 의해 다양하게 지적되었다. 캐런 뉴먼(Karen Newman)은 남성들 간의 사회적 결합을 공고히 하기 위한 매개체로 여성이 교환되어 왔다는 레비-스트로스(Levi-Strauss)의 논의를 바탕으로 포샤가 당대의 "섹스/젠더 시스템"(sex/gender system)을 이용하는 동시에 전복한다고 주장하면서, 『베니스의 상인』이 "여성의 유통"(traffic in women)이라는 가부장제의 교환구조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뉴먼은 "여성이 자본으로서, 남성들 사이의 교환의 대상으로 형상화된다"("Women figure as capital, as objects of exchange among men"; 22)고 이야기하면서도, 포샤가 참여하는 교환의 구조를 "선물증여"(gift-giving)만 연결지음으로써 작품의 핵심에 있는 선물교환과 상품교환의 구분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고 넘어간다. 반면, 라스 앵글(Lars Engle)은 『베니스의 상인』이 "화폐관계의 세세한 부분까지 유별나게 체계적으로 제시"("the play presents money relations in extraordinary and systematic detail."; "Thrift is Blessing" 20)하고 있으며, 작품 속에서 "영수증과 연애편지가 유난히 구별하기 어렵도록 되어 있다"("bills and love letters are unusually difficult to distinguish."; "Thrift is Blessing" 20)고 지적하면서 결혼의 문제를 화폐와 신용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짓는다. 조금 다른 맥락에서, 캐롤 레벤톤(Carol Leventon)은 『베니스의 상인』이 "돈, 여성, 권력에 대한 당대의 불안에 반응하고 참여한다"("the play responds to and participates in contemporary anxieties about women, money, and power."; 59)고 보고, 당대에 이루어진 상속법의 변화와 그에 따른 세습재산(patrimony)의 보존에 대한 가부장제의 불안이 딸의 성적/경제적 자율성을 통제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졌으며 그러한 불안이 『베니스의 상인』에서 포샤와 레베카를 통해서 각각 표현되지만 결국 억눌려진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의들이 말해주는 것은 여성의 교환을 통한 남성들 간의 유대 형성을 핵심으로 하는 가부장제의 사랑의 논리에 보다 자본주의적 경제의 논리가 스며들었으며, 그로 인해 초래된 불안이 셰익스피어의 작품의 핵심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브루스터는 중세의 문학의 남성들간의 거래의 "상징자본"(symbolic capital)이었던 여성이 셰익스피어의 시대에 와서는 "경제자본"(economic capital)으로 재현되게 되었다고 지적한다(48-49).

브루스터는 이어서 경제자본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순환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이 재산의 소유에 대한 불안을 낳았고, 그러한 불안이 여성에 대한 성적 통제에 대한 불안으로 번역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상품과 돈의 교환을 직업으로 하는 상인이 이러한 성적/경제적 불안을 모두 체현하는 존재로 받아들여졌다고 지적한다(55-58).

또한 상인은 부와 상품이 자신의 손을 떠나 타인에게 가도록 허용하는 일에 익숙해져야 한다. [상업과] 결혼, 오쟁이질의 연관성은 근본적으로 소유권의 문제에 있다. . . . 상인이 된다는 것은 손실의 위험을 감수하고 상품을 운에 맡기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업활동은 불가피하게 불안을 만들어낸다. (55-56)

The merchant must also accustom himself to allowing wealth and commodity to pass from his hands into those of another. The connection [of commerce] with marriage and cuckoldry resides, at root, in the problems of ownership. . . . Because to be a merchant is to risk loss, to render commodity up to chance, the business of commerce produces inescapable anxiety. (55-56)

『베니스의 상인』의 첫 장면은 상업과 금융의 도시라는 명성을 지녔던 베니스의 리알토(Rialto)를 배경으로 상업적 투기 혹은 투자 행위에 내재된 불확실함에 대해서 탐구한다.

그리고, 한마디로, 방금 이만큼 가치있다가

다음 순간 아무 가치도 없어진다는 것?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일이 생기면 슬퍼지리라는

생각이 없을 수 없지 않겠나? (1.1.35-38)⁶

And, in a word, but even now worth this,

And now worth nothing? Shall I have the thought

To think on this, and shall I lack the thought

That such a thing bechanced would make me sad? (1.1.35-38)

안토니오는 자신은 재산을 여러 사업에 분산 투자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 해에 모든 재산을 투기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면서(1.1.41-45), 그가 자신의 상품(merchandise)에 대해서 생각하느라 슬픈 것이라는 살레리오의 이론에 반박한다. 하지만 자신의 재정 상태에 대한 안토니오의 설명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는데, 그는 전 재산이 바다에 묶여 있다고 바사니오에게 고백할 뿐 아니라(1.1.176-78) 이후 실제로 풍랑을 맞아 모든 재산을 잃게 된다(혹은 잃었다고 생각하게 된다). 따라서 살레리오의 위 대사는 안토니오의 처지에 적합할 뿐 아니라 모든 투기적인 상업활동에 내재된 불확실함을 가리킨다. 마찬가지로 샤일록은 안토니오가 돈을 빌려주기에 "충분한"(sufficient) 신용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하지만(1.3.12-13) "배는 나무 판자일 뿐이고, 선원은 인간일 뿐"("But ships are but boards, sailors but men."; 1.3.16-17)이라고 지적하면서 그에 대한 투자가 여전히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는 일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⁶ 이 글에 나오는 『베니스의 상인』의 모든 인용문은 Bedford 판을 바탕으로 필자가 번역하였다.

이처럼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상업경제의 속성은 베니스의 사회적 관계 전반의 독특한 성격을 규정하게 된다. 셰익스피어가 그려내는 베니스 사회는 개인적인 친분과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려는 경향이 서로 긴밀히 엮여 구별되지 않는 곳이다. 예를 들어, 작품의 첫 장면에서 살레리오와 솔라니오는 바사니오, 로렌조, 그라티아노가 등장하자 더 "나은" 친구들이 도착하였으니 자신들은 떠나겠다고 이야기하는데(1.1.59; 1.1.60-61), 이에 안토니오는 이들이 자신의 눈에는 매우 소중하며/비싸며("dear"; 1.1.62) 사실은 각자의 불일/상업적 불일("business")이 있어서 떠나는 것으로 생각하겠다고 답한다(1.1.63). 이러한 의례적인 수사는 베니스인들이 서로의 관계를 상업의 언어(i.e., dear, worth)로 표현하면서 서로의 눈에 비친 자신의 가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줄 뿐 아니라, 이들의 관계가 친밀하면서도 분명한 거리감이 존재한다는 점을 부각한다. 예를 들어, 베니스인들은 서로 저녁을 함께할 만큼 친숙하지만(1.1.69-71) 각자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는 자신만의 불일이 있고 또한 쉽게 소원해질 수도 있는 사이("You grow exceeding strange. Must it be so?"; 1.1.67)인 것으로 드러난다.

이처럼 상호의무와 실리의 추구라는 상반되는 경향이 공존하는 베니스 사회의 속성은 비공식적이고 개인적 신뢰에 바탕을 두었던 신용관계가 점차 비개인적이고 실용적인 형태로 변해가고 있었던 당대 영국의 현실을 반영한다. 16세기 후반의 영국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와 복잡한 채무관계에 얽혀있었을 뿐 아니라 대부분 서로를 잘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상호간의 신뢰(trust)에 기반한 거래들이 이루어졌는데, 이해관계가 긴밀히 얽혀있었던 만큼 채무 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채무자와 채권자 둘 만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전체의 이익을 위협할 수도 있었고 따라서 돈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나 돈을 돌려받지 못해 파산한 채권자는 둘다 신용을 잃고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었다(Muldrew 178-180). 이처럼 개인의 신용에 바탕을 둔 상업행위가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하는 일이었다는 사실은 위험의 정도를 측정하고 보다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개인적 관계에 실리의 잣대를 적용하는 것을 필요로하게 되었고, 개인에 대한 개인적이고 도덕적인 판단을 객관적이고 경제적인 언어로 끊임없이 번역할 것을 요구했다. 이때 이러한 경제적 판단이 이미 안면이 있는 사람의 인물됨에 대한 친밀한 지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면서 친밀함과 거리감, 투명함과 불투명함이 공존하는 독특한 성격을 지니게 된다. 애그뉴는 돈의 유동성(liquidity)의 개념 자체가 투명성과 불투명성의 이미지를 동시에 지니고 있듯이 화폐 경제 또한 이러한 이중적 속성을 지닌다고 지적한다.

생산의 요소와 결과물이 화폐화되면서 시장관계가 불투명해진다는 사실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다. "유동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투명하고 명백하게 함과 동시에 균질적이고 형체가 없도록 하는 금전적 조치의 역설적 성질을 전달한다. (43)

That market relations should grow opaque in tandem with the monetization of the factors and products of production is scarcely surprising. The word "liquidity" itself conveys the paradoxical sense of a pecuniary measure that clarifies and renders indisputable in one instance only to homogenize and render formless in another. (43)

이와 같은 상업적 모험에서의 신용의 문제는 안토니오와 바사니오의 사랑의 문제의 핵심에 있고, 포사와의 결혼이라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바사니오는 자신의 채무를 갚아내기 위해서 벨몬트의 상속녀와 결혼할 계획을 안토니오에게 제안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에게 돈을 투자해줄 것을 부탁한다. 이때 자신이 안토니오에게 돈과 사랑 모두에 빚을 지고 있다는 바사니오의 대사는("To you, Antonio, / I owe the most, in money and in love"; 1.1.129-30) 이들의 채무가 사랑의 표현이면서 동시에 구체적인 금액의 형태로 존재하는 빚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하지만 돈이 거래되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 이들의 사랑이 일련의 경제적인 요구를 따르게 만들면서 긴장을 초래한다. 바사니오는 자신이 진 빚을 어서 갚아내는 것이 가장 큰 걱정거리("my chief care / Is to come fairly off from the great debts"; 1.1.126-27)라고 이야기하면서, 안토니오에게 다시 한번 돈을 부탁해야하는 상황에 부담을 느껴 장황하게 서두를 늘어놓는다(1.1.139-51). 이에 안토니오는 바사니오가 자신의 진심을 의심한다고 불평하고(1.1.152-55) 경제적 계산이 아니라 바사니오의 명예에 투자하겠다고 말하지만(1.1.152-59), 바사니오가 자신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은 그를 난처하게 한다. 돈이 개입했다는 사실은 서로 사이에 오간 금액을 엄밀하게 따지도록 할 뿐 아니라, 어서 서로의 채무를 청산해야한다는 암묵적인 압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안토니오가 바사니오에게 호의로 빌려준 돈은 부채감이 되어 서로를 억압하게 된다.

안토니오는 고리대금과 무이자대금을 도덕적으로 구별함으로써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빌려줄 때 이러한 경제적 압력을 초월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안토니오의 이러한 시도는 경제적 속성이 (이자의 여부와 상관없이) 돈의 거래 자체에 내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실패한다. 예컨대, 안토니오는 무이자대금은 친구 사이의 호의(kindness)를 의미하는데 반해 고리대금은 상대를 경쟁자나 적으로 대하는 것을 의미(1.3.123-126)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고리대금을 채무자에 대한 부당한 착취이자 죄악이라고 본 당대의 전형적인 시각을 반영한다. 안토니오는 원금을 초과해서 돈을 받는다는 것은 마치 자연적으로 증식할 수 없는 금속("barren metal")이 늘어나기라도 한 것처럼 대하면서 과도한 이익("excess")을 취하는 것으로 보고(1.3.124-25), 이에 샤일록은 야곱의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상대방의 재산을 훔치지 않는 "절약은 축복)("thrift is blessing")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안토니오는 양떼의 자연적인 증식은 야곱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신의 섭리가 개입해서 만들어진 것("A thing not in his power to bring to pass, / But swayed and fashioned by the hand of heaven")으로서 투자(venture)에 해당하는데 반해, 금과 은의 증식은 원금을 투자하지 않고 확실한 이익을 취하는 고리대금업자의 인위적인 이윤이라고 선을 긋는다(1.3.82-86). 요컨대, 안토니오는 자연적 증식과 인위적 증식을 구분하는 종교적, 도덕적 시각에서 고리대금을 악으로 규정하고,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자신의 투자관행과 샤일록의 고리대금을 구분짓는다.

상업의 불확실한 속성이 초래하는 안토니오의 불안은 모험을 하지 않는 고리대금업에 대한 분노로 표출된다. 하지만 안토니오의 구분은 상업투자와 고리대금 모두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라는 점과 고리대금만큼이나 상업투자도 부의 증식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금방 거짓된 것으로 드러난다. 셰익스피어는 상업이 친구를 만드느냐 적을 만드느냐의 문제가 결과적으로 이자를 받는지 여부와 상관없도록 만듦으로써(샤일록은 결국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빌려준다), 같은 상업적 행위라도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진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안토니오가 친구를 위해서 이자를 주지도 받지도 않는 관행을 스스로 깨겠다고 말하는 대목(1.3.51-54)은 고리대금이라고 할지라도 친구를 돕기 위한 목적이라면 (적어도 돈을 빌리는 자에게는) 도덕적으로 정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마찬가지로, 이자를 받지 않는 대신 채무상환 기한을 넘길 경우 안토니오의 살 1 파운드를 줄 것을 요구하는 샤일록의 조건부 계약의 의미 역시 그 객관적인 조건보다는 계약에 임하는 샤일록의 의도에 달려있다는 것이 드러난다. 안토니오는 이자를 받지 않는다는 계약의 조건에 주목해 샤일록이 호의를 건넨다고 생각하는데 반해, 바사니오는 샤일록의 의도를 알 수 없어서 살 1 파운드의 조건에 불길함을 느낀다. 이에 샤일록은 계약의 ‘진짜’ 목적은 안토니오와 친구가 되기 위함이라고 주장한다(1.3.128-33).

요컨대, 안토니오와 샤일록 사이의 고리대금에 대한 논쟁은 상업과 고리대금업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내리기보다는 모든 상업행위에 잠재된 부정적인 속성을 환기하는 기능을 한다. 고리대금이 착취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면서도 친구를 돕기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듯이, 이자를 받지 않는 조건부 계약 역시 호의의 표현일 수도, 적에게 복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 것이다. 셰익스피어가 『베니스의 상인』을 쓰고 약 30년이 지나서 프란시스 베이컨(Francis Bacon)은 「고리대금에 대하여」("Of Usury") (1625)에서 고리대금업이 공공의 이익에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원활한 상업활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게 된다.⁷ 베이컨은 고리대금업은 젊은 상인들에게 초기자본을 제공할 수 있고, 현금이 없어서 토지 재산(estate)을 잃게 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자를 받지 않는 대신 벌금이나 몰수(forfeiture)를 노리는 경우가 실제로는 고리대금보다 채무자에 대한 더 심각한 착취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베이컨은 경제행위의 의미는 맥락에 따라 다르고, 따라서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벌려는 의도에서 비롯되는 경제행위라도 모두의 이익을 도모할 경우에는 용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셰익스피어는 안토니오, 바사니오, 샤일록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채무관계에 내재된 경제적 요소를 샤일록과의 관계에 한정지음으로써, 안토니오와 바사니오 사이에 존재하는 경제적 긴장을 표면에 드러내지 않는다. 대신 안토니오의 바사니오에 대한 투자는 자신의 재산과 목숨을 담보로 모두의 이익을 도모하는 자기투자/투기(self-hazarding)의 예로 제시되게 된다. 이러한 자기모험의 이상으로서의 상업은 바사니오가 선택하는 납상자에 새겨진 "나를 선택하는 자는 가진 것을 모두 내놓아 투자해야한다"("Who chooseth me must

⁷ Bedford 판 『베니스의 상인』 207-209 면에 수록된 텍스트를 참조하였다.

give and hazard all he hath.")는 문구를 통해서 표현된다. 물질적 가치를 거부하고 자신을 상대방에게 전부 내주어야만 벨몬트의 부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있는 상자의 시험은 가장 물질적인 활동으로서의 상업을 가장 비물질적인 활동으로 바꾸어놓는 문학적 장치이다. 납상자를 선택하기 전 바사니오의 대사(3.2.73-107)에서 드러나듯이, 상자의 시험은 금과 은의 표면적인 가치("fancy")를 진실(truth)로 착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납상자의 창백함("paleness")은 인위적으로 부여된 가치를 거부한다는 의미를 지닐 뿐 그 자체로는 어떤 것도 약속("promise")하지 않기 때문에(3.2.105-107), 바사니오의 선택은 진정한 가치는 자신의 눈에 비치는 형태들 너머에 있음을 받아들인다는 일종의 선언이 된다. "기쁨이 따르기를"(Joy be the consequence!; 3.2.107)이라는 바사니오의 대사는 자신의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완전히 알지 못하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좋은 결과를 기원하는 태도를 가리킨다. 요컨대, 자기 투자(self-hazard)로서의 상업은 상자의 시험을 통해서 1) 타인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hazard)한다는 도덕적 의미와 2) 물질적 현실 너머에 알 수 없는 의도가 있다고 믿고 자신의 운을 건다(hazard)는 종교적 의미를 모두 지니게 된다.⁸

이처럼 셰익스피어는 상자의 시험을 통해서 상업의 의미는 재정의하지만 상업활동의 경제적 속성이 애초에 만들어내었던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 앞서

⁸ 본 논문의 논지와는 거리가 있지만 『베니스의 상인』을 서로에게 대가에 대한 기대없이 주는 선물의 경제로 읽는 논의로는 단순 Lawrence Danson 의 *The Harmonies of The Merchant of Venice* 와 샤프 Ronald A. Sharp 의 "Gift Exchange and the Economies of Spirit in *The Merchant of Venice*"를 참조하였다.

바사니오는 포샤와의 결혼이 그녀의 재산을 통해 빚을 갚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을 뿐 아니라(1.1.160-75), 그가 포샤를 찾는 많은 구혼자들과 경쟁하기 위한 선물을 사는데 안토니오의 돈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이후 밝혀진다(2.9.89-90). 즉, 셰익스피어는 포샤의 사랑을 얻기 위한 모험이 어디까지는 구체적인 금액이 투자된 사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한다. 앵글은 바사니오가 포샤의 재산을 획득하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위험과 선물을 사는데 든 비용이 포샤의 지참금(portion)에 맞춰 설정한 과부급여(jointure)라고 지적하기도 한다("Thrift is Blessing" 33).

바사니오의 이러한 투자의 결과로 이루어진 포샤와의 결혼이 경제적 관점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포샤의 다음과 같은 말에서 드러난다.

저 자신과 제 것이 이제 당신과 당신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저는
이 아름다운 저택의 군주이자, 하인들의 주인이고,
저 자신의 여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또 바로 지금
이 집, 이 하인들, 이 제 자신은
당신의 것, 제 주인의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이 반지와 함께
드리고,
만약 당신이 이 반지를 지니지 않거나, 잃어버리거나, 쥐버릴 때,
당신의 사랑의 파멸/파산을 예견하고

제게 유리한 조건에서 당신에게 큰소리 칠 수 있도록 하십시오.

(3.2.166-74)

Myself and what is mine to you and yours
Is now converted. But now I was the lord
Of this fair mansion, master of my servants,
Queen o'er myself; and even now, but now,
This house, these servants, and this same myself
Are yours, my lord's. I give them with this ring,
Which when you part from, lose, or give away,
Let it presage the ruin of your love
And be my vantage to exclaim on you. (3.2.166-74)

즉, 결혼이 성사됨과 동시에 바사니오는 포샤가 가진 모든 것을 전적으로 소유하게 되고, 포샤는 이러한 소유권 이전의 순간을 "지금"(now)이라는 단어를 반복해 강조한다. 한쪽이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빚이 성립하는 안토니오와 바사니오의 채무관계와는 달리, 바사니오와 포샤의 결혼계약은 아내가 남편의 전적인 소유가 된다는 점에서 훨씬 더 불평등한 교환을 의미한다. 포샤는 이러한 일방적인 조건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듯이 이야기하지만, 대사의 마지막에 부부 사이의 결합을 상징하는 반지를 바사니오가 늘 지니고 있어야한다는 조건을 덧붙임으로써 소유권의 이전을 잠정적으로 제약한다. 스톤에 의하면, 당대 영국의 관습법(common law)하에서 아내의 경제권은 전부 남편에게 귀속되었지만, 이러한 경제적 권한의 불균형을 상쇄하기 위한 노력으로 결혼 전에 재산을 신탁(trust)의 형태로 묶어두거나, 남편이 재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결혼계약

안에 약속 조항(covenant)을 삽입하는 관행이 존재하였다(*The Crisis* 623).⁹ 이러한 맥락에서 포샤가 요구하는 반지의 조건은 결혼계약 안에서 남편의 경제적 권한의 남용을 제한하는 상징적인 조항으로 이해될 수 있다. 다시 말해, 포샤는 자신의 경제권을 바사니오에게 넘겨주면서도 자신이 물려받은 재산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없도록 하는 계약적 장치를 마련한다. 하지만 경제적인 판단이기 이전에 포샤의 반지는 바사니오와 자신이 서로 성적으로 충실하겠다는 결혼의 또 다른 조건, 즉, 사랑의 약속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위 대목은 성적/경제적 계약으로서의 결혼의 이중적인 의미를 모두 표현한다. 즉, 포샤는 반지의 제스처를 통해서 결혼 관계에서의 성적 충실함과 경제적 충실함을 하나로 엮어낸다.

셰익스피어는 벨몬트의 돈이 처분되는 과정을 엄밀한 법적 절차로 그려내지 않음으로써 마치 벨몬트가 경제로부터 자유로운 이상적인 공간이라는 듯한 인상을 주게 한다. 하지만 바사니오와 포샤 사이의 경제적 긴장은 표면에 드러나지 않을 뿐 암묵적으로 제기된다. 예를 들어, 셰익스피어는 이들이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약속만 한 상태에서 재산의 소유와 통제에 대한 법적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의 문제를 모호하게 처리한다. 스톤은 결혼식을 올리지

⁹ 튜더왕조 하의 영국의 법제도에 대해 *De Republica Anglorum*(1583)을 쓴 토마스 스미스 경(Sir Thomas Smith)은 이러한 계약이 관습법 하에서 결혼 전에 맺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법적 효력이 있다고 말한다: "If there be any private contracts, convenants, and contracts made before the marriage betwixt the husband and the wife, by themselves, by their parents, or their friends, those have force and be kept according to the firmity and strength in which they are made." (Bedford 판 『베니스의 상인』 341-342 면에서 재인용).

않더라도 구두로 서약을 한 경우 결혼이 성립하였다고 이야기하지만(*The Family* 30), 바사니오와 포샤가 엄밀하게 서약을 주고받은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들의 결혼이 얼마나 법적 효력이 있는지를 분명치 않게 된다. 이때 설령 포샤가 형식적으로 바사니오에게 자신의 재산 소유권을 넘겼다고 하더라도, 그에게 실질적으로 권한이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예컨대, 바사니오는 벨몬트의 새로운 주인의 권한으로 베니스인들을 환영하는 것조차 주저하는데 반해("if the youth of my interest here / Have power to bid you welcome"; 3.2.219-220) 포샤는 벨몬트의 저택을 자신의 소유로 일컬으며 로렌조에게 관리를 맡기는 등("I commit into your hands / the husbandry and manage of *my house* / Until my lord returns"; 3.4.24-26 필자 강조) 실질적인 결정을 내릴 뿐 아니라, 안토니오의 빚을 갚는 문제를 사용가능한 금액의 구체적인 범위까지 언급하면서 어떻게 일을 처리할지를 주도한다(3.3.297-309). 즉, 경제의 문제가 법적으로 모호하게 처리된 상황에서 포샤가 실질적인 벨몬트의 주인으로 그려진다.

안토니오와의 관계에서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암묵적인 권력 관계가 존재하였듯이, 바사니오에 대한 포샤의 우위 역시 그녀가 바사니오를 돈을 주고 샀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¹⁰ 예컨대, 포샤는 자신이 바사니오를 "비싼 값에 샀기 때문에 소중하게 사랑하겠다"("Since you are dear bought, I will love you dear";

¹⁰ 뉴먼은 포샤의 경제적 자율성을 결혼 전 아내의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남편보다 우월할 경우 실제로 아내가 주도적인 경제적 권한을 행사하기도 했던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26). 반면, 레벤튼은 여성의 경제적 자율성이 지니는 전복적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포샤와 제시카를 통해서 각각 표현되지만 결국에는 제한된다고 주장한다(73).

3.3.311)고 이야기하는데, 바사니오와 포샤는 명목상 서로가 가진 모든 것을 상대방에게 투자함으로써 상대방이 가진 모든 것을 가지게 된다는 상자의 시험의 요구를 따르지만, 이들이 서로에게 투자한 돈의 구체적인 액수가 다르다는 사실이 이들의 관계를 조건짓게 된다. 안토니오의 배들이 돌아오지 못했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바사니오는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며 포샤에게 사과하듯 고백한다("When I told you / My state was nothing, I should then have told you / That I was worse than nothing"; 3.2.256-58).

이때 안토니오에 대한 바사니오의 빚은 결혼 전에 바사니오가 독자적으로 맺었던 경제적/사회적 의무의 잔재로서 바사니오가 포샤에게 경제적/성적으로 충실하기 위해서는 청산되어야 하는 것이 된다.

절대로 당신이 영혼이 편치 않은 채

포샤의 곁에 누울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런 사소한 빚을

스무번이라도 갚아버릴 만큼의 금을 가질 것입니다. (3.3.303-305)

For never shall you lie by Portia's side

With an unquiet soul. You shall have gold

To pay the petty debt twenty times over. (3.3.303-305)

포샤는 바사니오가 자신과 결혼계약을 맺기로 한 이상 안토니오에 대한 "사소한"(petty) 부채감에 시달려서는 안된다고 이야기한다. 즉, 바사니오가 포샤와 안토니오 모두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이 이 둘을 경쟁적인 관계로 만들게 된다. 포샤는 바사니오를 대신해서 안토니오의 빚을 갚음으로써 바사니오를 그가 지고 있는 감정적/경제적 부채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함과 동시에,

자신은 안토니오와 새로운 빛을 체결하고자 한다. 이때 포샤는 안토니오의 빛을 값는 일을 자신과 닮은 영혼을 사는 일이라고 표현하는데("How little is the cost I have bestowed / In purchasing the semblance of my soul"; 3.4.19-20), 안토니오-바사니오-포샤에서 다시 안토니오로 이어지는 돈의 사슬이 이들을 하나의 경제적 공동체로 묶어주는 동시에 "사랑의 굴레"(yoke of love)를 형성하게 된다.

하지만 돈의 교환을 통해서 형성된 사랑의 관계가 경제의 논리를 초월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은 샤일록의 재판과정에서 다시 한번 환기된다. 4 막 1 장은 안토니오와의 호의의 표현으로 장난처럼 맺은 채무의 조건을 샤일록이 엄격히 이행하라고 요구하면서 사랑의 표현이었던 상업 거래가 살인적 적의로 돌변한 상황에서 시작된다. 안토니오가 지적하듯이(3.3.26-31), 베니스는 모든 국적의 상인들의 경제활동에 매기는 세금을 주수익으로 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경제적 자유를 부정할 경우 경우 판례가 남아 국가의 법제도 자체가 의문시될 뿐 아니라 상업적 이윤을 더 이상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는 위험이 있다. 즉, 베니스의 법은 상업적 이윤추구와 베니스 자신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을 가장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경제의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샤일록의 요구는 도리어 베니스의 법이 베니스의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게 된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어낸다. 이때 고리대금업자로서 샤일록은 베니스인들의 상업활동에 필요한 금융자본을 제공할 뿐 아니라 그가 벌어들이는 이윤의 일부가 베니스의 국고를 채우게된다는 점, 그리고 안토니오 역시 그의 사업에 많은 베니스인들의 돈이 투자된 상황으로서 그가 파산할 경우 베니스의 경제적 안정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Muldrew 178)에서 두 인물 모두 베니스 경제에 있어서 필수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샤일록의 재판의 핵심은 베니스의 국익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가장 큰 원칙 하에서 베니스 경제가 내포하고 있는 구조적인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된다.

이때 포샤의 판결은 모든 개인에게 계약의 자유를 부여하는 베니스의 법이 지니는 한계를 넘어서는 듯하면서 동시에 법문 해석의 임의성을 드러낸다. 포샤는 살 1 파운드라는 계약의 조건에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어있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샤일록이 살인죄로 처벌받지 않고서는 벌금(forfeiture)을 취하지 못하도록 한다. 즉, 포샤는 계약의 조건을 의도적으로 문자 그대로 해석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한다는 사실은 인정하되 그 실행을 불가능하도록 만든다. 그리고 샤일록이 계약을 실행하기를 거부하자 포샤는 외국인이 베니스인에 대한 살인을 기도할 경우 모든 재산을 몰수한다는 베니스법을 적용해서 샤일록을 살인미수 혐의로 처벌한다. 이 판결은 1) 샤일록이 외국인이라는 사실과 2) 샤일록이 안토니오를 죽일 의도가 있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그 결과 포샤는 모든 개인에게 보장되는 경제적 자유에 대한 법이 아니라 외국인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살인기도죄를 적용하고, 결과적으로 샤일록은 베니스의 안의 경제적 타자가 아니라, 종교적, 인종적 타자로서 처벌받게 된다. 포샤의 판결은 베니스 법에 내재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경제의 문제를 유대인 샤일록에게 떠넘겨 가리는 잠정적인 타협을 이루어낸다.

법의 집행이 이처럼 계약의 목적과 맥락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은 한편으로는 (샤일록의 경제적 요구보다는 안토니오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경제의 논리를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법조차도 경제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바사니오의 대사를 상기시킨다(3.2.75-77). 특히 포샤가 베니스인들의 분쟁에서 제 3자의 객관적인 입장이 아니라 바사니오와 안토니오의 이익에 깊이 투자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은 포샤의 판결도 결국 돈의 경제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탈리아의 역사』 (*The History of Italy*)(1549)를 쓴 윌리엄 토마스(William Thomas)는 베니스의 법이 그 어느 나라보다도 훌륭하다고 말하면서도, 판결이 판사의 양심에 전적으로 달려있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부정부패가 심하고 가난한 사람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한다(134-134).¹¹ 법의 집행이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돈의 교환의 틀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재판이 끝나고 발자사르로 변장한 포샤가 판결에 대한 대가로 바사니오의 반지를 요구하자, 그에게 반지를 주라는 안토니오의 요구를 바사니오가 거부하지 못할 때 여실히 드러난다.¹² 이 대목은 앞서 재판 과정에서 바사니오가 안토니오를 살릴 수 있다면 그 대가로 자신의 아내마저도

¹¹ Bedford 판 『베니스의 상인』의 131-37 면에 수록된 텍스트에서 재인용하였다.

¹² 바사니오는 판결에 대한 대가로 샤일록에게 지불하기로 되어있던 삼천 듀카트를 발자사르에게 지불하려고 한다(4.1.403-407). 이에 발자사르는 자신의 의도는 돈을 벌려는게 아니었다고 말하지만(4.1.410-413), 바사니오가 대금(fee)이 아니라 선물(tribute)이라고 말을 고치자(4.1.416-19) 돈 대신 반지를 달라고 요구한다.

지불할 수 있다고 한 이야기(4.1.277-282)가 실제로 시험받게 되는 순간이다. 바사니오는 안토니오에 대한 빛과 발자사르의 판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한다는 요구와 포샤와의 계약을 지켜야 한다는 요구 사이에서 결국 전자를 선택하는데, 이러한 상황은 모든 교환이 돈에 의해서 매개되는 사회에서(i.e., 포샤와의 결혼, 안토니오와의 사랑, 발자사르의 판결) 필연적으로 서로 다른 요구들이 충돌하게 되고, 어느 한 계약도 경제의 논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안토니오를 사기 위해서는 포샤를 팔아야만 하는 상황은 발자사르가 사실은 포샤라는 사실 때문에 현실화되지 않지만, 바사니오와 포샤의 결혼이 베니스의 경제의 논리에 지배되는 상태로 남아있다는 불안은 작품의 끝까지 해소되지 않고 남는다. 포샤는 바사니오가 결혼계약을 어기고 자신을 팔아넘길 수 있다면 자신도 계약을 어기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위협한다.

그가 제가 사랑하고, 당신이 저를 위해
간직하기로 맹세 한 보석을 가졌으니,
저 또한 당신처럼 관대해지겠어요:
내가 가진 어떤 것도 그에게 거부하지 않겠어요,
아니, 내 몸도 내 남편의 침대도. (3.2.166-74)

Since he hath got the jewel that I loved,
And that which you did swear to keep for me,
I will become as liberal as you:
I'll not deny him anything I have,

No, not my body nor my husband's bed. (5.1.222-26)

위 대목에서 포샤는 바사니오가 포샤의 반지를 다른 사람에게 준 행위를 불륜과 동일시한다. 결혼이 부부 사이의 경제적 교환이면서 동시에 성적 교환이라는 점에서, 바사니오와 포샤의 "불륜"은 서로의 경제적/성적 자원을 결혼의 울타리 밖으로 소외시키지 않겠다는 결혼계약의 위반이 된다. 따라서 바사니오는 안토니오에 대한 사랑의 대가로 포샤와의 사랑을 상징하는 보석(jewel)을 팔 때, 경제적이면서 동시에 성적인 불륜을 저지르게 된다. 『베니스의 상인』은 상업적 계약에 내재된 경제적 긴장이 서로를 경제적/성적으로 소외시키지 않겠다는 합의로서의 결혼계약에 의해서 잠정적으로 해소되는 결말을 맞지만, 네리사의 반지를 지키는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그라티아노의 마지막 대사가 암시하듯이(5.4.304-305), 이러한 합의가 외부의 경제적 질서로부터 얼마나 보호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끝까지 남는다.

요컨대, 『베니스의 상인』은 상업적 모험을 중심으로 구성된 베니스 사회의 속성에서 비롯되는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서 포샤라는 상품을 차지하기 위해 모험하는 인물들이 벨몬트에서 일종의 상업적 합의의 형태의 잠정적인 화합을 이루어내는 이야기를 다룬다. 작품이 제기하는 상업적 교환의 부정적인 속성은 샤일록에게 떠넘겨져 가리워지지만, 남녀간의 사랑에서의 불륜에 대한 불안으로 표현된다. 경제적 교환과 성적 교환 사이의 연관성이 초래하는 이 불안은 이후 『트로일러스와 크레스이다』에서 보다 전면적인 것으로서 탐구되게 된다.

3. 『트로일러스와 크레스이다』와 사랑의 상품화

브루스터는 셰익스피어가 『트로일러스와 크레스이다』에서 "트로이를 계승하는 도시로서의 런던에 대한 당대의 관심을 상업주의의 확장에 대한 알레고리적 풍자의 바탕으로 삼았다"(Shakespeare employed contemporary interest in London's Trojan heritage as the basis of an allegorical satire of the City's growing commercialism.; 102)고 주장하면서, 작품의 거의 모든 인물이 상업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며(102), "사랑과 전쟁이 상업적 노력이 되고,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개인적 관계가 물질적 차원에서 이루어진다"(love and war become commercial endeavors and relations – social, political, and personal – take place on the material plane.; 103)고 지적한다. 사랑이 실제 상업적 계약의 형태로 재현되었던 『베니스의 상인』과 달리, 『트로일러스와 크레스이다』에서 사랑은 상업의 언어를 통해 묘사된 성적인 교환으로 재현된다. 헬렌의 연인으로 작품에서 트로이 전쟁에서의 사랑의 성격을 대변하는 파리스는 "사랑의 발생"(generation of love)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뜨거운 피를 만들어내는 비둘기말고 사랑은 다른 어떤 것도 먹지
않는데, 뜨거운 피는 뜨거운 생각을 낳고, 뜨거운 생각은 뜨거운
행위를 낳으니, 뜨거운 행위가 곧 사랑이지. (3.1.123-25)¹³

¹³ 이하 이 글에 나오는 『트로일러스와 크레스이다』의 모든 인용문은 Arden 판을 바탕으로 필자가 번역하였다.

He eats nothing but doves, love, and that breeds hot blood, and hot blood begets hot thoughts, and hot thoughts beget hot deeds, and hot deeds is love. (3.1.123-25)

위 대목에서 사랑은 뜨거운 피, 뜨거운 생각, 뜨거운 행위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순수하게 물질적인 차원으로 환원된다. 파리스는 열정(passion)의 근원인 피가 비둘기를 먹음으로써 생성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랑을 성적 행위 자체와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파리스의 사랑에 대한 예찬은 영혼없는 생리적인 현상을 묘사하고 있다는 인상마저 주게 된다. 또한 파리스의 이론을 들은 판다러스는 그렇다면 사랑이 "뱀의 자손"(generation of vipers)이냐고 되묻는데(3.1.126-28), 예수가 바리새인과 불신론자들을 가리키며 한 이 말(Arden n.11)을 통해 파리스의 사랑은 믿음이 결여된 절망의 상태와 연결된다. 즉 순수하게 육체적이기만 한 현상으로서의 사랑은 초월적 질서로부터 유리되고 정신적 가치가 결여된 타락한 인간활동을 의미하게 된다.

트로일러스와 크레스다가 판다러스의 주재로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다음 장에서 판다러스는 파리스의 "뜨거운 행위"(hot deeds)로서의 사랑을 상업적 계약(deeds)과 동일시한다.

말로는 빛을 갓지 못합니다; 행동/계약서로 보여주세요. 하지만 그녀가 당신의 행위를 의심한다면, 당신의 행동/계약을 무효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키스한대] 아니, 또 입질/장부 기입을 하고 있나? 자, 여기 '이상 그에 대한 증거로 양측 공히.' (3.2.54-57)

Words pay no debt; give her deeds. But she'll bereave you o'the deeds too, if she call your activity in question. [*They kiss.*] What, billing again? Here's 'In witness whereof the parties interchangeably'. (3.2.54-57)

성적 행위와 상업적 계약 사이의 말장난에 바탕을 두고 있는 위 대목에서 사랑은 성적 행위의 상업적 교환을 의미하게 된다. 판다리스는 두 연인의 관계를 빗(debt)으로 표현하고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하라고/계약서를 달라고 트로일러스를 재촉하고, 트로일러스가 사랑의 계약에서 자신이 약속한 바(activity)를 충분히 이행해서 크레스다를 (성적으로) 만족시키지 못하면, 크레스다 역시 그에게 합당한 (성적) 보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판다리스는 이어서 키스를 회계장부에 잔고를 기입하는 행위(billing)에 비유하면서 스스로를 계약의 공증인으로 삼는데, 이후 두 연인이 서로의 사랑을 맹세하자 흥정이 끝났으니 어서 "거래"(bargain)를 성사시키라고 종용하고(3.2.192) 이들을 침대가 있는 방으로 인도한다("Amen. Whereupon I will show you a chamber with a bed"; 3.2.202-203).

이처럼 상업적 교환과 성적 교환을 동일시하는 경향은 셰익스피어의 작품 이전에도 발견된다. 예를 들어, 오비드는 『아모레스』 (*Amores*)에서 연인 관계에서의 정치적 속성을 상인들 사이의 흥정에 빗대어 표현한다.

둘에게 동등한 기쁨이어야 할 사랑이—왜 한쪽이 파는 것을 다른 쪽이 사야 합니까? 왜 나의 즐거움이 내게 손해를 주고, 당신의

즐거움은 당신에게 이득을 가져와야 합니까—남자와 여자 모두가
기여한 즐거움인데도요?¹⁴

The love that is to be equal joy to both—why should the one make
sale of it, and the other purchase? Why should my pleasure cause me
loss, and yours to you bring gain—the pleasure that man and woman
both contribute to? (Showerman 361)

오비드는 양쪽 모두에 동등한 즐거움을 주어야 할 사랑이 한 사람에게에는 이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에는 손해가 된다는 점을 한 사람의 손해가 곧 다른 사람의 이익이 되는 상업거래에 비유한다. 하지만 상업적 교환에 내재된 불균형(disparity)이 사랑의 속성이라는 오비드의 인식이 사랑을 순수하게 물질적인 차원으로 환원시키지는 않는데, 오비드의 시에서의 상업은 비록 불공평한 거래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두 사람 사이의 직접적인 흥정을 바탕으로 하는 도덕적인 결합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반면, 상업거래에 빚대어진 트로일러스와 크레스다의 사랑은 판다러스라는 제 3자의 개입에 의해서 둘만의 관계 너머로 확장된 상업적 질서 안에 자리잡히게 된다. 초서의 판다러스가 친구 트로일러스와 자신의 조카 크레스다를 엮어줌으로써 크레스다를 트로이 사회의 일부로 정착시키는 역할을 하였다면, 셰익스피어는 그를 모든 잠재적인 연인들에게 침대와 방을 제공하는 큐피드, 즉, 전문적인 중개인으로 형상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미 전형화된 뚜쟁이(pander)처럼 행동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¹⁴ 『아모레스』(Amores)의 인용문은 Harvard 판의 그랜트 샤워먼(Grant Showerman)의 영역을 바탕으로 필자가 번역하였다.

사랑을 일종의 매춘으로 바꾸어놓는다("And Cupid grant all tongue-tied maidens here / Bed, chamber, pander to provide this gear!"; 3.2.205-206). 중개인으로서 판다리스의 역할은 (꼭 트로일러스가 아니더라도) 크레스다의 아름다움에 가장 높은 값을 부르는 쪽으로 그녀를 파는 일이 되는데, 이는 판다리스가 크레스다가 언제든지 그리스 진영으로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며 트로일러스를 부추기는 대목("She's a fool to stay behind her father; let her to the Greeks, and so I'll tell her the next time I see her"; 1.1.76-78)에서 잘 드러난다. 작품의 마지막에서 스스로를 매춘알선업자에 비유하면서("Good traders in the flesh"; 5.11.45) 세상이 자신과 같은 사람을 필요로하는데도 자신은 욕을 먹어야한다며 한탄하는("O, world, world, world! Thus is the poor agent despised!"; 5.11.35-36), 판다리스는 그가 속한 세계의 성격을 대변하고 그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는 중개인(agent)으로서 트로일러스와 크레스다의 사랑을 트로이 전쟁의 성적/정치적 경제 안에 위치시킨다.¹⁵

¹⁵ 해리 버거 주니어(Harry Berger Jr.)는 셰익스피어가 판다리스의 행동 동기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그를 "순수한 외부적 대리자의 전형; 자신만의 사생활이나 결핍 없이, 타인의 입장만을 전달하는 자"(He is the paradigm of pure external agency; a communicator of the parts of others, with no privacy or privation of his own.; 133)로 그려낸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판다리스가 모든 인물의 입장을 동등하게 대변하는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 그리스 진영에 가지 않겠다는 크레스다의 말에 가야만 한다고 단정짓는다거나(4.2.96) 이 소식이 트로일러스에게 미칠 영향에 더 걱정하는 모습(4.2.86-87)을 보인다. 판다리스가 크레스다의 운명에 무심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는 무엇보다도 이들이 속한 세계의 교환의 논리의 중개인으로서 그 논리의 불평등한 속성까지도 대변한다.

르네 지라르(René Girard)는 트로이 전쟁을 헬렌에게 집중된 "모방적 욕망"(mimetic desire)이 "명성"(prestige)을 생산해내는 하나의 "거대한 판다러스적 작전"(a massive Pandarus-style operation)으로 묘사한다(200). 즉, 판다러스가 크레스다에 대한 그리스인들의 욕망을 암시하며 트로일러스의 욕망을 자극하였듯이, 헬렌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 과정에서 그녀에 대한 욕망이 생산되고 부풀려지게 된다는 것이다. 지라르의 논의에서 사랑의 욕망은 두 연인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라 제 3의 경쟁자의 욕망의 개입을 통해서 만들어지며, 그렇기 때문에 (남자의 경우) 정작 사랑의 대상을 획득하고 나면 욕망이 사그러지게 되고, 사라진 욕망은 경쟁자에 대한 질투에 의해서만 되살아난다(193-197).

포샤와 그녀의 유산을 차지하기 위해 각국에서 몰려든 구혼자들이 바다를 건너와 서로 경쟁하였듯이 『베니스의 상인』에서도 경쟁은 사랑의 재현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다루어졌다. 이때 셰익스피어는 포샤를 향한 성적 경쟁과 벨몬트의 재산을 향한 상업적 경쟁을 동일시함으로써 경쟁에 바탕을 둔 사랑의 욕망을 상업적 이윤에 대한 욕망과 연결지었다. 하지만 『베니스의 상인』에서 욕망 자체가 경쟁을 통해서 형성된다는 생각은 지속적으로 암시될 뿐 부정되었다. 예를 들어, 모로코는 "나를 선택하는 자는 많은 남자들이 욕망하는 것을 얻게 될 것이다"(Who chooseth me shall gain what many men desire)라는 문구가 적힌 금상자를 선택하지만, 그 안에 걸보기에 현혹되어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상징하는 해골("carrion Death")을 발견하게 됨으로써 경쟁에서 비롯된 욕망이 허구라는

점이 강조된다. 즉, 경쟁을 통해 대상의 가치 혹은 욕망이 형성된다는 생각은 오직 부정되기 위해서 제기되는 것이다. 반면 『트로일러스와 크레시다』에서는 경쟁이 대상에 대한 욕망을 만들어낸다는 생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뒤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베니스의 상인』에 암시되었던 문제를 표면화한다. 이때 사랑의 대상을 '소유'하고 나면 욕망이 사라지다가 대상이 타인의 손에 넘어가는 상황을 상상하고 나서야 되살아난다는 지라르의 언어에서도 드러나듯이, 『트로일러스와 크레시다』에서의 사랑의 메커니즘은 유통의 과정에서 비로소 가치가 발생하는 상품교환의 논리를 연상시키고, 셰익스피어는 이 둘 사이의 연관성을 상업의 언어를 통해서 표현한다.

헬렌을 돌려보내면 전쟁에 들어간 "피해"(damage)를 모두 "탕감"(struck off)해 주겠다는 네스터의 편지를 프라이암이 읽으면서 시작되는 2 막 2 장은 셰익스피어가 트로이 전쟁의 본질을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차원에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헬렌을 반환하라, 그러면 모든 피해가—
 명예와 관련해서나, 시간, 노력, 비용,
 상처, 친구의 상실, 그리고 이 가마우지 같은 전쟁이
 후끈 달아올라 집어삼킨 값비싼 것 무엇이든 다—
 탕감될 것이다. (2.2.3-7)

Deliver Helen, and all damage else—
 As honour, loss of time, travail, expense,
 Wounds, friends, and what else dear that is consumed

In hot digestion of this cormorant war —

Shall be struck off. (2.2.3-7)

헬렌의 처분 문제를 두고 헥터와 트로일러스는 모두 상업의 언어를 사용해 서로 다른 주장을 제기하는데, 이들의 논쟁의 핵심에는 상업적 이익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헥터는 헬렌이 트로이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녀를 위해 싸우다 희생된 트로이인들의 생명을 '지출'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Every tithe soul 'mongst many thousand dismens / Hath been as dear as Helen —I mean, of ours."; 2.2.19-20). 즉, 이방인으로서 헬렌은 별다른 쓸모는 없으면서 유지비만 드는 처치 곤란한 물건이나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she is not worth what she doth cost / The holding."; 2.2.51-52). 반면, 트로일러스는 헥터가 명예의 무한함을 "저울"(scale)과 "계산대"(counters)로 측량하려 한다고 비판하면서(2.2.25-32), 헬렌이라는 "진주"(pearl)의 "가격"(price)은 그리스의 왕들이 모두 상인이 되어 바다를 건널 정도로 그녀를 욕망한다는 사실에서 증명된다고 주장한다(2.2.81-83).

헥터와 트로일러스 모두 헬렌의 처분을 트로이의 인적, 시간적, 상징적 자원의 운용이라는 "경제"의 틀에서 해결하고자 한다. 하지만 헥터는 헬렌의 직접적인 이용가치(use-value)를, 트로일러스는 교환가치(exchange-value)를 각각 강조하면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한다.¹⁶ 헥터는 대상의 가치는 외부에서 부여되는

¹⁶ 마르크스에게 이용가치와 교환가치는 상품(commodity)에 내재된 상반된 측면을 각각 대변하면서도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다. 이용가치는 상품의 물리적 속성으로서 질과 양(quality and quantity)을 지니며, 사용되거나 소비될 때만 그 가치가

것일 뿐이라는 트로일러스의 말("What's aught but as 'tis valued?"; 2.2.53)에 대상이 지니는 속성과 무관하게 가치를 부여하는 자의 욕망만을 고려하는 것은 "정신나간 우상숭배"("mad idolatry")라고 반박한다.

하지만 가치는 개별적 욕망에 자리잡고 있지 않네;

가치는 감정인에게뿐 아니라

그 자체로서 귀중할 때

그만의 평가와 위엄을 지니지. 신보다 의식을

더 대단한 것으로 삼는 것은 정신나간 우상숭배네;

뚜렷한 장점에 대한 별다른 고려 없이

스스로가 병적으로 만들어낸 것에

기우는 욕망은 망령이 든 것이네. (2.2.53-60)

But value dwells not in particular will;

It holds his estimate and dignity

As well wherein 'tis precious of itself

실현된다(126). 교환가치는 말 그대로 교환과정에서 거래되는 값으로 서로 질적으로 다른 상품의 이용가치를 추상화해 상응하도록 한다(127). 이용가치는 "교환가치의 물질적 매개"(material bearers of exchange-value; 126)이지만 둘은 각각 질적 차이와 양적 차이만을 가리키기 때문에 서로로 환원될 수 없다(128). 마르크스는 이 두 개념이 공통으로 지니는 것이 인간 노동의 산물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가치(value)를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socially necessary labour time)이라고 정의한다. 이때 가치는 "균질한 노동이 응고된 양" (congealed quantities of homogeneous human labour)으로서 "유령 같은 객관성"(phantom-like objectivity)을 지니며, 이용가치와 교환가치는 이 가치의 서로 다른 표현이 된다(127).

As in the prizer. 'Tis mad idolatry
 To make the service greater than the god;
 And the will dotes that is inclinable
 To what infectiously itself affects,
 Without some image of th'affected merit. (2.2.53-60)

헥터는 대상에게서 발견되는 장점(merit)에 대한 고려없이 욕망(will)이 스스로를 대상에 투영하는 것을 질병이 전염되는 것에 비유한다. 이때 헥터는 대상이 욕망과 무관하게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기 보다는, 대상 자체가 지니는 속성과 가치매기는 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모두"("as well"; 2.2.) 고려되어야 제대로 된 가치라고 주장한다.¹⁷ 이는 달리 말하면, 헬렌은 그녀가 속해있는 사회적 관계 안에서 가치와 정체성을 부여받는다라는 것인데, 헥터는 헬렌이 트로이의 이방인으로서 별다른 가치가 없다면, 남편 메넬라우스에게는 가장 "밀접한 빚"("What nearer debt in all humanity / Than wife is to the husband?"; 2.2.175-76)이 된다고 이야기한다. 이때 헥터가 아내를 남편과 서로 빚진 관계를 맺고 있는 주체가 아니라 그 빚 자체(debt)로 형상화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헬렌은 (트로이 진영이든 메넬라우스이든) 누군가가 소유하는 재산으로 간주된다.

반면, 트로일러스는 애초에 파리스가 헤시오네(Hesione)의 납치에 대한 대가로 헬렌을 데려온 온 것이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for an old aunt whom the

¹⁷ 헥터가 사용하는 단어 "이미지"(image)는 가치매김의 주관적인 측면을 강조한다(Berger 128).

Greeks held captive, / He brought a Grecian queen"; 2.2.77-78), 헬렌의 가치는 트로이와 그리스 사이의 교환의 논리를 바탕으로 계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트로일러스는 헬렌을 "늙은 이모"(old aunt) 대신에 데려온 젊고 아름다운 그리스의 여왕(2.2.78-79)으로서 트로이쪽이 명백히 이익을 본 교환의 성과로 이야기하는데, 그 과정에서 헤시오네가 친족이라는 사실은 잊혀지고 오직 성적인 대상으로서 헬렌에 훨씬 못 미친다는 사실만이 고려된다. 즉, 포로 교환의 논리 하에서 두 여성은 모든 사회적 정체성(i.e., 국적, 친족 관계, 왕족 신분 등)을 잃고 순수하게 성적인 아름다움(beauty)이라는 기준에서 평가받게 된다. 이때 아름다운 여성으로서 헬렌은 무엇보다도 몸으로 존재하게 되고 따라서 물질적인 대상으로 교환되지만, 동시에 모든 남성들의 욕망이 수렴하는 초점으로서 무한한 가치를 지니는 상징으로 추상화된다("Why, she is a pearl . . . Inestimable!"; 2.2.81-88).¹⁸

헥터와 트로일러스의 서로 다른 경제관은 애그뉴가 이야기하는 시장의 의미의 변화상을 반영한다. 애그뉴에 의하면, 특정 개인들 사이의 제한적인 경쟁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의미하였던 중세의 시장이(38), 15, 16 세기에 걸쳐 경계가 점차 허물어지면서 임의의 개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추상화된 거래로 변모하게

¹⁸ 캐롤 쿡(Carol Cook)은 "헬렌은 물리적인 아름다움으로서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지니지만, 욕망의 담론은 문자 그대로의 육체성을 집착적으로 넘어서려고 한다"(Helen is inestimable in her physical beauty, yet the discourse of desire obsessively reaches beyond literal corporeality.; 39)고 지적한다. 이러한 헬렌의 속성은 비평가들에 의해서 "암호"(cipher)(Cook 39), "남근적 기표"(phallic signifier)(Charnes 426), "성과 폭력의 우상"(idols of sexuality and violence)(Girard 200),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불가해한 공간"(spongy, fathomless space)(O'Rourke143) 등으로 다양하게 묘사되었다.

된다(41). 그 과정에서 상업은 한 상품을 더 가치있는 상품으로 교환하기 위해 돈이 매개로 사용되는 형태에서,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상품이 교환되는 형태로 변모하게 된다(42). 헬렌을 시장가격과 동일시하는 트로일러스의 시각은 상업거래의 목적을 물건의 소유나 소비가 아니라 시장에 되파는데 있다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트로이 진영에서의 헬렌의 쓸모를 따지는 헉터의 전통적인 상업관과 대비된다. 트로일러스의 이러한 투기적인 상업관은 그가 전쟁을 통해 획득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명성을 상업적 이윤에 비유하는 대목에서 잘 드러난다(2.2.199-206). 트로일러스는 전쟁의 목적을 트로이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헬렌을 지켜내려는 노력이나 트로이 진영의 생존이 아니라, 그녀를 담보로 싸우면서 얻게 될 "약속된 영광"("promised glory")에 대한 투자로서 이야기하고, 그 결과 헬렌은 명성의 축적을 통한 불멸의 획득, 혹은 "정전화"(canonization)를 위한 모험에서의 상업자본이 된다.¹⁹

명성이라는 이윤을 창출해 내는 상업자본으로서 헬렌은 이상화되지만, 이 모든 과정이 그녀의 자유로운 교환을 전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그녀에 대한 이중적인 평가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트로일러스는 헬렌을 "더럽혀진 비단"(soiled silk) 혹은 "먹다 남은 음식"(remainder viands)에 비유(2.2.67-72)한 바로 다음 대목에서 그녀를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지닌("inestimable") 진주에

¹⁹ 이때 트로일러스가 사용하는 단어 "이자"("rich advantage"; 2.2.204)는 『베니스의 상인』에서 안토니오가 인위적이고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화폐의 증식을 가리켜 사용한 단어("Methought you neither lend nor borrow / Upon advantage"; *MV* 1.3.60-61)라는 사실은 명성을 이윤처럼 좇는 모험의 허구성을 암시하며 부정적인 함의를 지닌다.

비유한다(2.2.81-92). 두 대목은 모두 헬렌을 구체적인 상품에 비유하고 있지만, 첫번째 은유가 비단과 음식의 일차적인 물질적 속성을 연상시킨다면, 두번째 은유는 진주의 표면적 아름다움과 그 상징적 가치를 따진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즉, 비단이나 음식처럼 입거나 먹기 위한 물건(i.e., 결혼해서 데리고 있기 위한 아내)으로서 헬렌은 이미 시장가치가 없는 "망가진" 상품이지만(2.2.65-72), 관조되고 진열되기 위한 대상, 즉, 늘 교환의 문턱에 있는 대상으로서 헬렌은 무한한 잠재적 가치가 결정화된 보석이 된다. 이때 아름다운 몸으로서 헬렌은 일종의 물건이지만, 자본으로서의 물질성을 넘어서 이상화되는데 반해, 이미 교환된 상품으로서의 물질성이 강조되면서 혐오와 기피의 대상이 된다(Cook 39-40).²⁰ 하지만 이러한 구분은 절대적이라기 보다는 유동적이어서 헬렌에 대한 평가는 혐오와 찬사 사이를 오가게 된다.

린다 차니스(Linda Charnes)는 헬렌은 남성들 사이의 정체성과 차이를 만들어내는 기호이지만 그녀가 양 진영 모두에서 교환된다는 사실이 이 차이를 붕괴시킨다고 주장하면서(426), 헬렌이 만들어내는 허구적인 위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남성 인물들은 헬렌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자신들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부정해야한다고 지적한다(427). 상품으로서의 헬렌의 지위에 대한 트로일러스의 이중적인 의식은 정절의 부재에 대한 의도적인 망각을 필요로 한다.

²⁰ 마크 네즈로프(Mark Netzloff)는 "초기 근대의 자본은 여러 형태로 구현되었지만, 여전히 그 물질적인 형태와의 관계에서 정의되었다"("In the early modern period, capital possessed multiple incarnations, yet was defined in relation to its material form."; 160)고 지적한다. 자본으로서 헬렌은 물질적인 몸으로 존재하면서 동시에 이를 넘어서는다.

『트로일러스와 크레스이다』에서 정절은 욕망을 부추김으로써 여성을 더 가치있는 상품으로 만드는데 필수적이면서 동시에 여성의 교환가능성을 부정할 것을 요구하는 역설적인 기능을 한다. 예를 들어, 파리스는 헬렌을 매춘부라고 부르는 다이오메디스(4.1.57-68)를 사려는 물건을 일부러 평가절하하는 상인에, 자신은 팔려는 물건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는 상인에 각각 비유하는데(4.1.77-89), 헬렌을 더 비싼 값에 팔기 위해서 그녀의 정절에 대해서 침묵하겠다는 파리스의 대사에서 정절은 그 부재를 알면서도 모른척하는, 암묵적인 환상이 된다. 헬렌을 가치있는 대상(i.e., 다이오메디스 등이 욕망할 만한 대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파리스는 그녀의 정절없음을 모른 척하고, 그녀를 되파는 자신의 행동이 그녀의 정절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스스로를 기만한다.

그리스인들이 크레스이다에게 돌아가며 키스하는 장면(4.5.18-64)은 바로 이 환상을 연극한다. 그리스 진영의 수장(general)으로서 아가멤논은 크레스이다에게 가장 먼저 키스하자("Our general doth salute you with a kiss"; 4.5.20), 올리시즈는 그녀가 "모두에게 키스 받는게 낫다"("Twere better she were kissed in general."; 4.5.22)고 제안하고, 네스터는 "매우 예의바른 조언"("very courtly counsel"; 4.5.22)이라고 말한다. 그리스인들은 크레스이다를 궁정의 레이디처럼 대하며 농담을 주고 받거나 키스를 구걸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궁정식 놀이를 통해서 이들은 크레스이다를 공유하기도, 그녀를 두고 경쟁하기도 하면서 서로 간의 암묵적인 위계를 확인한다(예컨대, 키스를 받지 못한 메넬라우스는 파트로클로스에게 다시 한번 놀림을 받으며 초라해지는데 반해 두 번의 키스를

받은 파트로클로스는 의기양양해진다). 크레스이다는 키스의 교환을 상업거래에 비유하면서(4.5.37-42) 자신을 상품으로 대하는 인물들과의 연극에 참여한다(Bruster 98). 상품으로서 크레스이다의 역할은 스스로를 성적인 대상으로 교환하면서도 적절히 정절의 환상을 유지하는 '홍정'을 해내는 것이다("The kiss you take is better than you give; / Therefore no kiss."; 4.5.39-40).

트로이 전쟁의 본질을 보여주는 이 연극은 크레스이다가 (헬렌과 마찬가지로) 전쟁포로이자 성적 대상으로 교환되고 있는 현실을 노골적으로 연출하면서도(키스의 교환은 상업 거래 혹은 빚에 비유된다; 4.5.37-52) 인물들이 이를 유희로 취급함으로써 가리는 기능을 한다.²¹ 크레스이다에게 키스를 구걸하고는 헬렌이 처녀가 될 때 키스를 받겠다고 말하는 울리시즈의 대사는(4.5.-46-71) 헬렌이 처녀가 된다는 환상과 마찬가지로의 환상이 이 키스의 의식을 통해서 연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하지만 정절의 환상은 교환의 현실에 직면했을 때 금새 깨지게 되고, 이는 곧 여성에 대한 혐오감으로 표출된다. 다이오메디스가 헬렌을 "오염된 시체 덩어리"(contaminated carrion weight; 4.5.73)라고 부른 것과 마찬가지로, 울리시즈는 크레스이다의 몸이 "음탕한 내면"(wanton spirit)을 내비치며 말을 한다고 이야기한다(4.5.56-58). 상품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크레스이다는 울리시즈에 의해서 눈, 볼, 입술, 발

²¹ 트로이 전쟁 자체가 일종의 운동 경기의 성격을 띤다. 예컨대, 이니어스는 전쟁을 스포츠에 비유하는데(what good sport is out of town today!"; 1.1.109), 이에 트로일러스는 전쟁을 바깥의 스포츠("sports abroad"; 111)에 사랑을 집에서의 스포츠("Better at home"; 1.1.110)에 각각 비유한다.

등의 분절된 육체가 말을 하는 모습("her eye, her cheek, her lip, / Nay, her foot speaks"; 4.5.56-57)으로 형상화된다.

요컨대, 정절은 여성을 "아직 획득되지 않은 물건"(thing ungained)으로 만들어 욕망을 자극하면서도, 그 가치가 교환 과정에서 창출된다는 사실을 숨기는 환상으로 기능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절의 환상은 허구인 만큼 더욱 치열하게 유지되어야 할 절박한 사안이 된다. 트로일러스의 사랑은 헬렌을 유통함으로써 영원한 명성을 얻고자 하는 욕망과, 헬렌이 전쟁의 피를 뒤집어 써서 아름다운 것일 뿐이라는 인식(1.1.868-9) 사이에서 갈등한다. 헬렌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의 명분의 궁핍함을 어떤 채워지지 않는 허기로서 경험하는 트로일러스는("I cannot fight upon this argument; / It is too starved a subject for my sword."; 1.1.88-89), 크레스다와의 사랑이 자신의 모든 욕망을 충족시켜줄 신의 음식 넥타가 되기를 원한다("Love's thrice repured nectar"; 3.2.20). 경쟁과 소음의 공간으로 묘사된 전쟁터(1.1.85-89)와 대조적으로, 크레스다와의 만남은 마침내 안식할 수 있는 상태로서의 죽음의 이미지로 형상화된다(3.2.7-14). 트로일러스에게 헬렌이 전쟁과 자기증명을 향한 끝없는 분투를 상징한다면, 크레스다는 모든 전쟁이 끝난 뒤 가치가 증명된 자에게 약속된("Proposed for the deserver"; 3.2.12) 땅으로서 현세로부터의 도피처가 되는 것이다. 이때 이러한 진실한 사랑의 조건이어야 할 크레스다의 정절은 모든 반례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유일하고도 예외적인 사례가 되는데, 트로일러스는 여자에게 진실함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만약 그럴 수 있다면," 크레스다가 진실하다고 "가정"하겠다고

말한다("O, that I thought it could be in a woman — / As, if it can, I will presume in you —"; 3.2.153-54).

트로일러스의 크레시다에 대한 사랑은 상업적인 매개없이 그녀를 직접 알고자 하는 욕망으로 표현된다("Tell me, Apollo, for Daphne's love / What Cressid is"; 1.1.94-95). 그는 판다러스 없이 크레시다에 도달할 수 없는 현실을 한탄하면서("I cannot come to Cressid but by Pandar"; 1.1.91), 상인에 비유된 자신과 크레시다라는 진주 사이에는 험난한 파도가 놓여있다고 말한다(1.1.95-100). 크레시다와의 만남을 앞두고 트로일러스는 상상 속의 크레시다("th'imaginary relish"; 3.2.17)와 "실제" 크레시다를 구별하면서 후자가 전자보다 더 순수한 기쁨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What will it be, / When the wat'ry palates taste indeed / Love's thrice-repured nectar?"; 3.2.18-20), 이처럼 "실제" 크레시다를 "맛보고자" 하는 트로일러스의 욕망은 그녀를 감각될 수 있는 물리적 실체로 이상화하려는 방식으로 표출된다. 크레시다는 값비싼 상품이면서 동시에 먼 인도 어딘가에 잠들어 있는 신화적인 진주이며(1.1.96), 달콤하면서도 감각을 초월하는 넥타가 된다(3.2.22-23).²² 결과적으로, 트로일러스의 욕망은 앞서 논의되었던 헬렌에 대한 욕망과 스스로를 구별하고자 하면서도 이와 닮게 된다.²³

²² 쿡은 트로일러스의 욕망이 크레시다의 몸을 향하면서 그녀의 몸을 분절시킨다고 지적하면서(38), 트로일러스의 언어가 아름다움의 근원으로서 몸의 물질적인 속성을 순수하게 정제("a rarefied distillation of the physical"; 39)한다고 주장한다.

²³ 차니스는 헬렌과 마찬가지로의 방식으로 가치를 부여받는 크레시다는 "이상화되면서 동시에 이상화되지 않는다"(She is and is not idealized; 426)라고 지적한다. 트로일러스는

세익스피어는 트로일러스와 크레시다의 사랑의 결과가 이들의 만남 이전부터 진행되어 온 트로이 전쟁의 교환의 순환 안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불가피한 것처럼 묘사한다. 예컨대, 칼카스는 그리스에 자신을 판 대가로 크레시다를 요구하고, 이는 전략적 가치를 지닌 인물들이 자유롭게 교환되고, 심지어는 트로이의 왕자까지도 잠정적인 포로교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보다 넓은 정국의 일부로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그려진다("they will almost / Give us a prince of blood, a son of Priam, / In change of him."; 3.3.25-28). 이후 트로일러스가 크레시다의 교환이 프라이엄과 트로이 의회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이니어스의 말에 조금도 반박하지 못한다는 것은(4.2.61-73) 그가 자신과 크레시다를 상업적 질서의 틀 바깥에서 상상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크레시다 역시 자신의 상품적 지위에서 벗어나는 선택을 하는데 실패하는데, 크레시다가 트로일러스가 준 소매와 자신을 동일시 하는 바로 그 순간(5.2.83-86), 다이오메디스에게 소매를 빼앗기면서 트로일러스에 대한 사랑도 잃어버리게 된다("He that takes that doth take my heart withal"; 5.2.88).

세익스피어가 벨몬트에서 서로에 대한 상업적 투자를 통해 형성된 경제적 공동체를 구현하고 했다면, 트로이 전쟁에서는 트로이 전쟁의 상업경제가 총체적인 사회적 분열을 초래하는 상황을 그려낸다. 예컨대, 서사이어티스는 아가멤논이 병들어 고름이 터져나온 다음에야 내용("matter")이 생길 것이라고

사랑의 대상을 정신적 이상으로 승화시키는 페트라르카적 언어를 차용하지만, 그의 언어는 크레시다를 헬렌과 마찬가지로 물질적으로 이상화한다.

말하면서(2.1.5-9), 그리스 진영이 지도자의 권위를 중심으로 조직된 권력구조 하에서 작동한다는 생각이 허상이라는 것을 폭로한다. 올리시즈가 설명하듯이, 그리스 진영은 상급자가 하급자를 지배하는 특권("specialty of rule")이 여론("opinion")에서 비롯되는 정치력으로 대체되면서 모두가 "창백하고 핏기 없는 경쟁"("pale and bloodless emulation"), 혹은 죽은 경쟁에 몰두하는 상황이다(Mallin 148-49). 이때 그리스 진영의 경쟁("emulation")은 질병의 이미지를 통해서 전염성을 지닌 힘으로 묘사된다. 올리시즈는 아킬레스의 오만을 "질투의 열병"("envious fever")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질병은 아킬레스가 자신의 천막 안에서 그리스 진영의 지휘자들을 과장되게 흉내내며 조롱하는 "모방"("imitation")을 통해 다른 그리스 장수들에게까지도 전염되고 있다고 이야기된다("And in the imitation of these twain . . . many are infect"; 1.3.185-87).

스톤은 16-17 세기에 걸쳐 영국의 귀족계급이 점차 과거의 정치, 사회적 입지를 잃어간 것이 이후 절대왕정의 몰락의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하면서, 그 원인으로 작위의 인플레이션과 토지재산의 활발한 매매가 초래한 계급간 유동성의 증가를 꼽는다(*The Crisis* 65-198). 리처드 할펀(Richard Halpern)은 스톤의 논의가 상징자본에 대한 경제자본의 우위를 보여준다고 지적하는데(14), 『트로일러스와 크레스이다』는 귀족적 명성을 (또 명성에서 비롯되는 권력을) 상업적 이윤처럼 그려내면서 전통적으로 토지에 바탕을 두고 있었던 귀족계급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권력이 상업경제의 권력구조로 대체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앵글은 그리스 진영의 분열에 대한 올리시즈의 대사가

봉건주의에서 자본주의로의 이행에 따라 사회적 위계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그것이 추구되는 방식과 그 의미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Engle, *Shakespearean Pragmatism* 155). 또한 모든 것이 힘 안에 귀속되어 버린 세계에 대한 올리시즈의 대사("Then everything includes itself in power"; 1.3.119)는 경쟁이 보편화되면서 정작 힘을 행사하는 주체는 모습을 감추어버린 체계를 암시한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정치적 혹은 법적 집행없이 경제의 메커니즘 안에서 잉여 가치를 추출해내는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의 특징(Halpern 3)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셰익스피어는 질병의 이미지를 통해 타인보다 우월해지고자 하는 경쟁의 욕망과 그러한 욕망이 지니는 전염성을 표현한다. 올리시즈의 "질투의 열병"은 서사이어티스에 의해서 성병의 이미지로 구체화된다. 서사이어티스는 질투라는 악마에게 기도하면서("devil envy say 'Amen'"; 2.2.20) 매춘부를 차지하기 위해 전쟁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병에 걸리라는 저주를 내린다("Or rather, the Neopolitan bone-ache! For that, methinks, is the curse dependent on those that war for a placket."; 2.2.17-19). 이때 서사이어티스가 사용하는 질병의 이미지들이 대부분 신체의 표면을 변질시키는 것들이라는 점은 내면의 타락함이 표면에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의미를 지닐 뿐 아니라 인물들이 무엇보다도 몸의 표면으로서 존재한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예를 들어, 서사이어티스는 파트로클러스를 "도금된 위조화폐"("gilt counterfeit")라고 부른 다음 그의 시체가 너무 훼손되어 나병 환자("lazars")만큼이나 흉할 것이라고 저주하는 대목(2.3.23-

31)에서 거짓된 표면을 지닌 화폐의 순환과 몸의 표면을 일그러뜨리는 성병의 순환이 동일시된다.²⁴ 앞서 헥터가 대상에 없는 가치를 부여하는 과정을 질병이 전염되는 과정에 비유하였던 것과 같이("And will dotes that is inclinable / To what infectiously itself affects"; 2.2.58-59) 질병은 교환가치를 대상의 실체로 받아들이는 태도와 연결된다. 나병은 크레시다가 변절에 대한 벌로 걸렸다고 이야기되는 질병으로 본래 성적배신의 의미를 지녔었다면, 셰익스피어는 여기서 가져온 질병의 모티프를 트로이 전쟁 전체의 도덕적 타락을 표현하는데 사용한다(O'Rourke 140).

『베니스의 상인』이 상업행위를 사실적으로 재현함으로써 경제를 도덕으로부터 독립적인 탐구의 대상으로 삼으려 시도했던 것과 달리, 『트로일러스와 크레시다』는 질병의 이미지를 통해서 경제를 도덕적 타락과 연결짓는다는 점에서 모어의 『유토피아』와 맥을 같이 한다. 이때 『트로일러스와 크레시다』에서 상업은 모든 인간 활동의 경쟁적 속성을 표현하기 위한 은유가 되는데, 이는 작품을 지배하는 "시장"이 올리시즈에 의해 불변의 가치를 허용치 않는 "시간"(Time)의 이미지로 추상화되는 대목에서 잘

²⁴ 셰익스피어는 실체가 없는 인위적인 가치로서의 화폐의 이미지를 사용해 트로이 전쟁이 만들어내는 명성의 공허함을 표현한다. 헥터와의 결투에 앞서 명성을 드높일 기대에 잔뜩 부풀어 있는 에이작스가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나팔을 부는 시종에게 돈을 건네는 장면에서("Thou, trumpet, there's my purse."; 4.5.7) 명성은 돈과 실제로 교환가능한 것이 된다. 작품 전반에 걸쳐 명성의 실체없음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터사이어티스는 "비방을 동전 만들 듯 하는 노예"(A slave whose gall coins slanders like a mint; 1.3.193)라고 불린다.

드러난다. 율리시즈는 시간이 등 뒤에 지갑을 달고 다니면서 "망각"(oblivion)에 돈을 기부한다고 표현하면서, 과거의 명성이란 시간이 지나면 관심에서 밀려 사라지고 말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명성을 추구하지 않으면 낡은 갑옷처럼 버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3.3.151-54). 즉, 개인의 가치는 명성과 동일되고, 이는 쉽게 실증을 낼 뿐 아니라 변덕스럽기까지 한 어떤 힘에 좌우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경쟁하는 것만이 도태되지 않는 길이라는 것이다. 율리시즈는 이러한 시간이 "아름다움, 지성, 고귀한 태생, 건강, 의무수행에 대한 보상, 사랑, 우정, 자선"과 같은 모든 사회적 가치를 지배한다고 이야기한다(3.3.172-75).

요컨대, 셰익스피어는 사랑의 이상이 상품화된 육체에 대한 욕망으로 전략하는 모습을 통해서 당대의 상업주의를 비판한다. 트로이의 전쟁터는 무한한 명성의 추구를 위한 경쟁이라는 투기적인 상업행위가 난무하는 곳으로, 헬렌과 크레스이다는 이러한 남성들 간의 경쟁에서 성적 대상으로 교환된다. 욕망과 가치가 상업적 교환의 과정에서 형성된다는 사실은 사랑의 대상을 추상적 가치를 지니는 물건, 즉, 상품으로 만든다. 트로이 전쟁의 교환 관계가 주조해낸 추상화된 가치가 결정화된 상품으로서 헬렌과 크레스이다는 남성 인물들에게 "명예의 주제"(theme of honour)이자 "매춘부"(whore)라는 이중적인 평가를 받는다. 여성의 상품화는 남성적 정체성 구성의 핵심에 있으면서도 끊임없는 불안을 야기하고, 작품 속 남성 인물들은 이 역설을 정절에 대한 환상과 의도적인 망각을 통해서 유지한다. 트로일러스는 크레스이다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트로이 전쟁의 교환의 고리를 초월할 것을 열망하지만, 대상의 이상화에 바탕을 둔 그의 궁정식 사랑은 오히려

크레시다를 상품화하는 결과를 낳고, 사랑의 대상의 "진실"(truth)에 도달하려는 욕망, 혹은 대상을 보다 긴밀하게 이해해야 한다는 필요는 역설적으로 성적인 통제에 대한 불안이 된다. 『트로일러스와 크레시다』는 『유토피아』의 도덕적 경제관을 이어받지만, 모어가 작품을 썼던 세기 초에 비해서 상업적 질서가 훨씬 더 전면화된 세기 말의 현실을 반영하고, 이는 모든 인간활동에 스며든 질병의 이미지를 통해서 표현된다.

4. 결론

16-17 세기의 상업경제의 확장에 따라 영국의 사회관계 전반에는 경제의 논리가 개입하게 되었다. 과거에 사회 일부 영역에만 국한되어 있었던 상품교환은 16 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모든 사회적 교환을 매개하는 지배적인 개념으로 부상하였다. 이 시기 런던을 중심으로 생겨난 상업적 공공 극장은 상품교환의 사회적 함의를 탐구하는 공간으로 기능하였는데, 특히 사랑의 관계를 상업의 언어와 개념을 통해서 이해하고 재현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당대의 극작가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베니스의 상인』은 상업 행위를 사실적으로 재현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화폐 교환의 구체적인 내역을 가지고 플롯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에서 출발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셰익스피어는 실제 상업 행위이자 사랑의 제스처로서의 자기 투기(self-hazarding)를 통해서 이윤 추구의 부정적인 속성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지만, 상업의 착취적인 속성은 작품 안에서 해결된다기 보다는 샤일록이라는 타자에게 치환되면서 가리워진다. 인물들 사이의 선한 의도나 상호 의무의 가치와는 별개의 교환의 논리를 지니는 화폐 경제의 속성은 특히 결혼관계에서의 성적 소유의 불안으로 번역된다. 『베니스의 상인』은 사랑과 부를 모두 얻은 베니스인들이 벨몬트의 저택에 모이는 강렬한 화합의 이미지로 결말을 맺지만 사랑과 상업의 불완전한 결합은 다가올 비극을 예고한다.

셰익스피어는 『트로일러스와 크레시다』에서 트로이 신화의 사랑과 전쟁의 이야기를 상업적 경쟁의 이야기로 바꾸어 놓는다. 사랑의 관계는 상업거래에 비유되면서 일종의 매춘으로 재현되고, 트로이 전쟁은 헬렌이라는 궁국의 상품을 차지하고 명성이라는 이윤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적 투기 행위가 된다. 남성적 경쟁에서의 매개로서 여성 인물들은 경쟁의 메커니즘이 창출해내는 교환가치를 체현하는 물건, 즉, 상품이 된다. 남성 인물들 스스로의 가치가 자신들이 상품으로 이상화한 여성의 교환을 통해서 구성된다는 사실은 여성의 정절에 대한 의도적인 망각을 통해서 가려지지만, 교환의 현실에 부딪혔을 때 남성적 불안은 여성혐오적인 담론으로 표출된다. 트로일러스는 트로이 전쟁의 상품교환의 논리를 넘어서는 이상을 크레시다와의 사랑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지만, 초월적 사랑에 대한 욕망이 역설적으로 크레시다를 더욱 물질적으로 이상화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트로이 전쟁이 대변하는 경제 논리는 인간이 만들어낸 질서를 넘어서 마침내 어느 한 개인도 벗어날 수 없는 초월적 힘으로 형상화된다. 셰익스피어는 모든 사회 관계에 침투한 경제의 논리를 성적, 도덕적 타락을 가리키는 질병의 이미지를 통해서 표현한다.

『트로일러스와 크레시다』가 상업에 대한 일관되게 부정적인 시각을 제시하고 있는 것과 달리 『베니스의 상인』은 안토니오를 통해 고리대금업에 대한 전형적인 비난을 제기하면서도, 상업 행위의 의미가 목적과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 경제적 윤리에 대한 판단을 보다 구체적이고 복잡하게 만든다. 이때 사랑은 경제를 통해 실현되어야 할 이상이면서 동시에

경제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가치가 된다. 포샤는 "나 혼자만을 위해서는 나 스스로의 처지가 더 나아지길 바랄 야심이 없지만"(Though for my self alone/ I would not wish myself much better"; 3.2.150-52), 바사니오를 위해서라면("yet for you") 천배 더 아름다워지고, 만배 더 부유해지길 바란다고 이야기한다(3.2.153-154). 셰익스피어는 사랑의 욕망의 무한함을 경제적 욕망의 무한함을 포용할 수 없는 모델로 삼고, 경제적 욕망을 이타적 욕망으로 새롭게 정의함으로써 돈이 사랑을 위해 사용되는 새로운 유토피아가 가능한지를 탐구하였다.

요컨대, 『베니스의 상인』 과 『트로일러스와 크레시다』 는 사랑과 상업을 핵심적인 주제로 삼아 둘 사이의 관계를 탐구한 작품으로서, 세기 말을 전후로 하여 상업적 경제의 부상의 사회적 함의에 대한 셰익스피어의 지속적인 탐구의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중세적 도덕적 경제관이 여전히 유효한 상황에서 이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업의 확장이 영국인들의 의식에서 희망과 절망이라는 서로 다른 얼굴을 동시에 지녔다는 사실은 두 작품이 그려내고 있는 상반되는 전망에서 드러난다. 특히 『트로일러스와 크레시다』 가 『베니스의 상인』 이후에 쓰여졌다는 사실은 세기 말을 살았던 셰익스피어에게 상업이 약속하는 미래란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것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셰익스피어는 사랑의 이상과 경제의 논리 사이에서 화해를 시도하기도 또 갈등을 부각하기도 하면서 상업에 바탕을 둔 사회의 명운을 따진다.

인 용 문 헌

일차문헌

토마스 모어. 『유토피아』. 김남우 옮김. 문예출판사, 2014. Print.

Bacon, Francis. "Of Usury." *The Essays or Counsels, Civil and Moral, of Francis Bacon*, 1625. Print.

Castiglione, Baldesar. *The Book of the Courtier*. Trans. Charles S. Singleton. Ed. Daniel Javitch. New York: W.W. Norton, 2002. Print.

Ovid, G. P. Goold. *Heroide · Amores*. Trans. Grant Showerman. Harvard University Press, 1977. Print.

Shakespeare, William. *The Merchant of Venice*. Ed. M. Lindsay Kaplan. Boston: Bedford/St. Martin's, 2002. Print.

---. *Troilus and Cressida*. Ed. David Bevington. New York: Arden Shakespeare, 1998. Print.

Niccholes, Alexander. *A Discourse on Marriage and Wiving*. London, 1615. Print.

Smith, Thomas. *De Republica Anglorum: The Manner of Government or Policy of the Realm of England*. London, 1583. Print.

Thomas, William. *The History of Italy: A Book Exceeding Profitable to Be Read: Because It Intreateth of the Estate of Many and Divers Commonweals, How They Have Been, and Now be Governed*. London, 1529. Print.

이차문헌

이종숙. 「역사 속의 유토피아」. 『외국문학』 13 (1987): 182-195. Print.

- Agnew, Jean-Christophe. *Worlds Apart: The Market and the Theatre in Anglo-American Thought, 1550-1750*.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Print.
- Berger Jr., Harry. "Troilus and Cressida: The Observer as Basilisk." *Comparative Drama* 2.2 (1968): 122-136. Print.
- Bruster, Douglas. *Drama and the Market in the Age of Shakespear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Print.
- . "On a Certain Tendency in Economic Criticism of Shakespeare." *Money and the Age of Shakespeare: Essays in New Economic Criticism*. Ed. Linda Woodbridge.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3. 67-78. Print.
- Charnes, Linda. "So Unsecret to Ourselves": Notorious Identity and the Material Subject in *Troilus and Cressida*." *Shakespeare Quarterly* 40.4 (1989): 413-440. *JSTOR*. Web. 29 November 2013.
- Chaucer, Geoffrey. *Troilus and Criseyde*. Trans. Nevill Coghill. London: Penguin Books, 1971. Print.
- Cohen, Walter. *Drama of a Nation: Public Theater in Renaissance England and Spain*.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5. Print.
- Cook, Carol. "Unbodied Figures of Desire." *Theatre Journal* 38.1 (1986): 34-52. *JSTOR*. Web. 4 July 2014.
- Danson, Lawrence. *The Harmonies of The Merchant of Venic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8.
- Engle, Lars. *Shakespearean Pragmatism: Market of His Tim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3. Print.

- . "'Thrift is Blessing': Exchange and Explanation in *The Merchant of Venice*." *Shakespeare Quarterly* 37.1 (1986): 20-37. *JSTOR*. Web. 10 January 2014.
- Girard, René. "The Politics of Desire in *Troilus and Cressida*." *Shakespeare and The Question of Theory*. Ed. Patricia Parker and Geoffrey Hartman. New York: Routledge, 1888-209. Print.
- Halpern, Richard. *The Poetics of Primitive Accumulation: English Renaissance and the Genealogy of Capital*.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91. Print.
- Hankins, James. "Renaissance Philosophy and Book IV of *Il Cortegiano*." *The Book of the Courtier*. Ed. Daniel Javitch. New York: W.W. Norton, 2002. 377-388. Print.
- Hawkes, David. "Exchange Value and Empiricism in the Poetry of George Herbert." *Money and the Age of Shakespeare: Essays in New Economic Criticism*. Ed. Linda Woodbridge.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3. 79-95. Print.
- Huizinga, Johan. *The Waning of the Middle Ages*. Trans. F. Hopman. New York: Penguin Books, 1987. Print.
- Kelly-Gadol, Joan. "Did Women Have a Renaissance." *Becoming Visible: Women in European History*. Ed. Renate Bridenthal and Claudia Koonz.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1997. Print.
- Knight, L.C. *Drama and Society in the Age of Jonson*. London: Methuen & Co Ltd, 1962. Print.

- Leventon, Carrol. "Patriarchy and Patrimony in *The Merchant of Venice*." *The Matter of Difference: Materialist Feminist Criticism of Shakespeare*. New York: Cornell UP, 1991. 59-79. Print.
- Marx, Karl. *Capital: A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Trans. Ben Fawkes. New York: Penguin Books, 1978. Print.
- Mallin, E. "Emulous Faction and the Collapse of Chivalry: *Troilus and Cressida*." *Representations* 29 (1990): 145-179. *JSTOR*. Web. 29 November 2013.
- Muldrew, Craig. "Interpreting the Market: the Ethics of Credit and Community Relations in Early Modern England." *Social History* 18.2 (1993): 163-183. *JSTOR*. Web. 15 January 2015.
- Newman, Karren. "Portia's Ring: Unruly Women and the Structure of Exchange in *The Merchant of Venice*." *Shakespeare Quarterly*. 38.1 (1987): 19-33. *JSTOR*. Web. 17 January 2014.
- Netzloff, Mark. "The Lead Casket: Capital, Mercantilism, and *The Merchant of Venice*." *Money and the Age of Shakespeare: Essays in New Economic Criticism*, ed. Linda Woodbridge.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3. 159-176. Print.
- O'Rourke, James. "'Rule in Unity' and Otherwise: Love and Sex in *Troilus and Cressida*." *Shakespeare Quarterly* 43.2 (1992): 139-158. *JSTOR*. Web. 29 November 2013.
- Pye, Christopher. "The Theater, the Market, and the Subject of History." *ELH* 61.3 (1994): 501-522. *JSTOR*. Web. 15 January 2015.
- Sharp, Ronald A. "Gift Exchange and the Economies of Spirit in *The Merchant of Venice*." *Modern Philology* 83.3 (1986): 250-265. *JSTOR*. Web. 1 March 2014.

- Shell, Marc. *The Economy of Literature*.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8. Print.
- Shershow, S. C. "Idols of the Marketplace: Rethinking the Economic Determination of Renaissance Drama." *Renaissance Drama* 26 (1995): 1-27. Print.
- Stone, Lawrence. *The Crisis of the Aristocracy, 1558-1641*. Oxford: Clarendon Press, 1965. Print.
- . *The Family, Sex and Marriage in England 1500-1800*. London: Penguin Books, 1990. Print.
- Tawney, R.H. *Religion and the Rise of Capitalism*.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77. Print.
- Woodbridge, Linda. ed. *Money and the Age of Shakespeare: Essays in New Economic Criticism*.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3. Print.
- Woodmansee, Martha, and Mark Osteen, eds. *The New Economic Criticism: Studies in the Intersection of Literature and Economics*. London: Routledge, 1999. Print.
- Wrightson, Keith. *Earthly Necessities: Economic Lives in Early Modern Britain*.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0. Print.

Abstract

Representing Love as Commerce:

From *The Merchant of Venice* to *Troilus and Cressida*

Don Hee Lee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England, the economic logic of commodity exchange and circulation came to permeate all social discourses as commerce intensified and expanded during the 16th and 17th centuries. Commodity exchange, which was previously confined to certain limited social spheres, became a governing metaphor in all social transactions by the latter part of the 16th century. The commercial, public theaters established in London during this period functioned as a place where the social implications of commodity-exchange were acted out and explored. In *The Merchant of Venice*, Shakespeare represents commercial activities objectively, without referring to the traditional moral frame, while placing the specificity of monetary exchange at the center of its plot. The play attempts to reconcile the ideal of love and the logic of commerce through the idea of "self-hazarding," but ultimately fails to resolve the tension created by the exploitative aspect inherent in all commercial exchange. Displaced to the alien figure of Shylock, the anxiety created by the autonomous quality of the money economy is repressed, only to be

translated as an anxiety over sexual possession in marriage. Despite the ideal of harmony achieved at the play's end, the incomplete union between love and commerce prefigures a tragedy to come. Written a few years later, *Troilus and Cressida* portrays a world where the competitive aspect of commerce is fully realized. The Trojan war is represented as a field of boundless speculation over Helen, as women are exchanged as commodities in a market of male competition. Here, the language of commerce is used to express the competitive aspect in all human activities, with clearly negative moral connotation. The contradictory attitudes towards commerce as represented by Shakespeare's two plays demonstrate the ambivalence that was inherent in the expansion of commercial economy in England around the turn of the century.

Keywords: Shakespeare, *The Merchant of Venice*, *Troilus and Cressida*, commerce, love, marriage, commodity, feudalism, capitalism

Student Number: 2012-22871